

생명샘 (living Stream)

Korean and English



Book 16 (2011)

White Young Jeon

Cambodia Reformed Faith Institutes

머릿말

목차

1.

물 위를 걸어오라 (마14:22-33) 2011. 1.2.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신 기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주님은(33) 우리에게 물(세상) 위를 걸어오라 고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약속을 나의 삶에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22-23절에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기적으로 먹이신 후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배타고 가라고 하신 후 따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도 거친 물결이 몰려와 괴로이 노 젓고 있는 저으며 항해를 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밤 중에 괴로이 노 젓고 있는 그 때(24) 주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유령으로 알아보고 무서워하자 즉시주님은 나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곤경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령이라는 그들의 선입견은 순간적으로 자기들의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33) 관념적 지식이 체험적 지식으로 변했습니다. 새해를 항해할 때 풍랑, 밤, 무서움은 모두 그 나라를 이루는 도구이지 헛된 것이 없음을 알고 주님의 전지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아시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에 게 "나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심이란 평안, 평화 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평강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만이 평강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모실 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다윗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평화가 오고 그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만일 주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은 이미 베드로 마음에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라는 명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체험은 초대교회의 사도로 위대한 역사를 행하는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얹은뱅이를 걸으라 하는 일과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은 모두 이 과정을 통한 연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후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데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위대한 일을 이룬 것입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왔지만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시며 새해에 물 위를 걸으라 하심을 믿고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주님은 지금도 받쳐주시기 때문입니다.

Walk on water (Matthew 14:22-33) 2011. 1.2.

The Lord, who walked on water and testified that He is the Son of God through the miracle of making Peter walk on water (33), commanded us to walk on water (world). How can I make this incredible promise a reality in my life? First,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Lord, who knows all of our suffering. In verses 22-23, after miraculously feeding more than 5,000 people with five loaves and two fish, he went to the mountain to pray. After telling

the disciples to go first in a boat, they obeyed the Lord's command individually, but rough waves came and they were distressed and had to row and sail. After they had been rowing in agony during the night for several hours (24), the Lord came to the disciples walking on the water. When the Lord suddenly came to me and I recognized him as a ghost and got scared, the Lord immediately told me to be at peace because it was me. Because He knew all about their plight. Their preconceived notions of being ghosts were instantly replaced by the Lord who knew all of their pain. The disciples truly confessed that they were the sons of God. (33) Conceptual knowledge changed into experiential knowledge. As we navigate the new year, we must acknowledge the Lord's omniscience, knowing that storms, nights, and fears are all tools to build the kingdom, and nothing is in vain. How do we deal with suffering? You must know that this i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God's blessings. Because the Lord already knew and sent it. Second, the Lord promised peace. The Lord said to those who were afraid, "It is I, so take heart." Here, relief refers to peace and peace. Jesus and peace cannot be separated. There is peace only in Jesus. Peace came to the disciples when they attended the Lord. So, like David in Psalm 18, we must run only to the Lord. Peace comes when we walk with the Lord, and only His voice gives us peace. Third, the Lord commanded us to walk on water. When Peter heard that it was the Lord and asked, "If it is the Lord, please invite me to come on the water," this is evidence that Peter already had a longing for the Lord in his heart. When he obeyed the command to come, he was able to walk on water. How amazing is this? This amazing experience made him an apostle of the early church and a tool to carry out great works. Telling a lame person to walk and witnessing boldly even in the face of threats are all the result of refinement through this

process. Afterwards, he became a person used by the Holy Spirit to open the door of the gospel to Gentiles in Cornelius' family. Peter truly accomplished a great thing. Paul went to the third heaven, but Peter had a foretaste of the glory of resurrection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Dear saints, please open your mouth wide, pray, believe and jump in when he tells you to walk on water in the new year. This is because the Lord supports us even now when we walk in faith.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마12:38-45) 2010. 12.26

자신을 두 인물에 비교하여 그들보다 더 크신 신이 라고 증거하신 주님이 이때는 일곱 귀신이 들어와 역사하는 시대임 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된 주님은 누구신가요? 첫째, 요나보다 더 크신 이십니다. 니느웨를 회개시키는데 쓰임 받은 선지자인 요나는 특이한 인물로 사명을 포기하다 징계로 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나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전해 12만명이 송두리채 구원받는 전무후무한 부흥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3일간의 장 계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의 효능 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왕의 권위임을 세상에 선 포하고 그 효능을 밝히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아브라함, 천사, 여호수아, 모세, 가나안 정복, 영전, 그리고 제사제도가 모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증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전통과 기술과 의식이 무용지물이고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됨으로 그리스도 를 떠나고 무서운 진노가 따른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 거 현재 미래 성공 실패 가정 직장 장래가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에 걸려있습니다. 그 죽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절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모든 그림자들이 완성된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서 모든 일의 효능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줄 믿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의 사실을 인정 하고 그를 믿어 네 죄를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 역사의 시작인 것 입니다. 둘째,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십니다. 요나의 그림자를

통하여 유대인의 모든 것을 죽음으로 완성하심을 보여주셨다면
 솔로몬을 통해 이방인과 만물에 까지. 그 구원의 지혜를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란 인물을
 비교하시면서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솔로몬과
 비교될 수 없는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처리한 효능은 부활과 승천으로 세상에 자기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고생은 했어도 그 속에서 보화를 전하고 누리고 선 언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일곱 마귀가
 역사하는 이 시대에 영계, 육계, 자연계 그리고 종교계에 문제가
 도사리는 이 때, 우리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하고 거기에 머물러 그 분과 교제를 깊이 나누어 그 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확신하여 약속된 영원한 효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The incomparable Christ (Matthew 12:38-45) 2010. 12.26

The Lord, who compared Himself to two people and testified that He was a
 greater God than them, showed that this was a time when seven demons came
 in and worked. Who is the Lord testified to? First, He is greater than Jonah.
 Jonah, the prophet who was used to repent Nineveh, was an unusual person.
 He gave up his mission and ended up in the belly of a fish as punishment, but
 he repented and preached the gospel again, and was used in an unprecedented

revival in which 120,000 people were completely saved. He spoke his three-day sermon as a shadow of his death and resurrection. He then says that He is greater than me. These words declared to the world that the effectiveness of Jesus' death was a royal authority that could not be compared to anything else, and revealed its efficacy. It is based on this evidence that the book of Hebrews says that Abraham, angels, Joshua, Moses, Canaan, the temple, the temple, and the sacrificial system were all focused on Christ. Therefore, he warned that if one does not realize that Jewish legalism has been completed in Christ, the traditions, techniques, and rituals are useless and become another form of idolatry, and as a result, people will leave Christ and face terrible wrath. Your past, present, future, success, failure, family, work and future all depend on the death of Christ. Without that death, there is no hope, an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ill all become despair. I believe that it is our job to know that all the shadows for Jesus have been completed and to enjoy the efficacy of everything by believing in it. Don't dwell on the past, but acknowledge the present and believe in Him, and stand firm on Christ for your sins. This is the beginning of a new history. Second, He is greater than Solomon. Through the shadow of Jonah, God showed that He completed everything for the Jews through death, and through Solomon, He also extended to the Gentiles and all things. He showed that the one who applies the wisdom of salvation is Christ. That is why he claimed his own royal authority by comparing himself to a person named Solomon. Christ is a source of wisdom that cannot be compared to Solomon. So, if you know Christ, you will gain wisdom in life. Christ is greater than Solomon. The efficacy of Christ's death was truly applied to his people in the world through his resurrection and ascension. Such is the history of the Book of Acts. Even though they went through hardships, they showed

people living the most beautiful lives in the world, spreading, enjoying, and proclaiming their treasures. In this age when the seven devils are at work, and problems lurk in the spiritual world, the physical world, the natural world, and the religious world, we must return to Christ, who is incomparable to anything else, and stay there, deeply fellowship with Him, and pray for Him in His provision. We must be filled with ability and live beautifully in this era. I pray that you can only have confidence in the faith of Jesus and experience the promised eternal effectiveness.

교회의 권세를 사용하라 (마 16:13-20) 2011.1.9

금년 둘째 주일,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에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를 생각함으로 우리 시대에 바른 교회관을 배워 영권을 활용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 이 누구인가로 나아가고 교회가 무엇이나는 생각을 하게합니다. 그 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이 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는 좋는데 교회 를 싫다고 말하고, 다른 이는 하나님 나라는 환영인데 교회는 부정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에서 가르치신 바른 교회관을 알 지 못하였거나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독교적인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분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요1:12-13)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 체란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왕이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 는 일에 진력하심을 계속 보았습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그의 증언을 믿지 못하여 항상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중심한 소수에게 그 자신이 알려져 믿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가 필수적으로 가져야할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합니다. 1)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아버지라 했는데 빛을 비출 때 이것의 비추임 받은 사건이 일어나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이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 그대로 믿어 알고 거듭난 사랑은 계속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벧전1:21) 2)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지식을 가진 사랑는 더 그를 알려고 사모하고 갈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요? 교회에게 두가지를 약속 하셨습니다. 1)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세력 사망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절망, 낙심, 실패란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모든 사망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2) 천국열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시키는 권세와 기도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는 자로 변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고 땅에서 닫는다 하면 하늘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땅의 권세가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땅에서 하는 일에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위대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적 교회관이 요청된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구원과 기도의 무기를 사용함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Use the authority of the church (Matthew 16:13-20) 2011.1.9

On the second Sunday of this year, we hope to think about what the church is and what authority is given to it, and to learn the correct view of the church in our time and go to a place where we can utilize our spiritual authority. First, what is a church? Knowing who Jesus is leads us to think about who the King

of God is and what the church is. Christ, the kingdom of God, and the church are important truths that the people of the kingdom of God must understand. Some say that Christ is good but they hate the church, while others say that the kingdom of God is welcome but the church is negative. This is all because they did not know or misunderstood the correct view of the church as taught in the Bible. The church is a gathering of people with a clear Christological confession. It means a community of people who, like Paul, clearly know who Jesus is and have a clear relationship with Him (John 1:12-13) and, like Peter, believe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lready we have seen that the King has come and that he is committed to revealing who he is. The religious leaders at the time did not believe his testimony and always stood in a position of denying and opposing him. However, he made himself known and believed in by a small number of his disciples. We discover two elements that a church must have. 1) You must receive revelation. It is said that the person who made this known was the Father, and when the light shines, the event that was given to it must occur. It is said that only those who receive revelation according to the wishes of the Father and Son will know it. Love that is born again by receiving the Word, believing it, and knowing it as it is, possesses a heart that continues to receive the Word and live. (1 Peter 1:21) 2) The church is people who believe and know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Love with the knowledge of salvation is designed to long and desire to know Him more. In other words, we become people who wait on Jehovah. Second, what authority does the church have? He promised two things to the church. 1) The church cannot be defeated by the powers of Hades. The powers of Hades, the powers of hell, and the powers of death cannot destroy the church. Because Christ has already taken charge of it.

Therefore, the terms despair, discouragement, and failure are not appropriate for believers. Because the Lord has dealt with all deaths. 2) You can exercise the keys to heaven. The power to save and the power to pray has been given. Those who are saved become people who pray. If you loosen it on the earth, the sky will loosen, and if you close it on the earth, the sky will close. The power of earth affects heaven. That is why the church is careful about what it does on earth. This is the great weapon the church has. God works through the church. In this era when a correct biblical church view is required, I pray that Juning's church will be established and this era will be renewed by using the weapons of salvation and prayer.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마18:15-20) 2011.1. 16

갈라디아 2:20절에 자기 안에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하기를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부활 승천하신 인자께서 일곱 초대(교회)를 왕래하시며 각 교회마다 나 타나신 모습이 모두 다르면서 위로와 회개와 권면 그리고 상급을 약속하신 이상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교회의 각 지체가운데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두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계신 주님은 그들의 부귀영화, 육신의 건강이나 세상의 경영방식이나 처 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곳의 근본인 죄 문제해결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계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 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엡4:13)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였기에 믿음 덕지 식 절제 인내 온유 사랑의 자리까지 성장할 것(벧후1:4-7)을 가리 킵니다. 히브리서는 그 목표가 거룩함(성결)이라고 말합니다. (히 12:14) 이 목표는 사도들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본래 원하신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주님의 뜻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열쇠를 행사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주의 형상을 가진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 리는 마태복음의 흐름에 먼저 하나님 나라(도래, 말씀, 비유, 증거 등)를 강조하시던 주님은 이제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삶을 보여주 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를 배운

자는 우리를 배워야합니다. 둘째, 그 목표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는가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칩니다. 1) 자기 죄를 제하려고 힘써야합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독소이기 때문에 교회지체가 범하는
 죄의 영향력은 전체에 미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개인의
 권면, 두 세 증인의 권면, 교회의 권고, 그래도 거절하면 출교 시키라고
 했습니다. (15-17) 2) 지체들의 모임에 힘써야합니다.(19-20) 교회는
 모임의 성격을 갖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최소의 단위라도 모여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히10:25) 3) 합심기도에 힘써야합니다.
 18-19절에 교회 권징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중보기도의
 권위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땅에서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는 것입니다.(마16:19) 주님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기도의 특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겸손히 드러 주님의
 사용받는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어 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현 실속에 주님의 착함,
 진실함, 의로움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The Lord at work in the church (Matthew 18:15-20) 2011.1. 16

In Galatians 2:20, he confesses that he is dead and Christ lives within him,
 saying that although he lives in the flesh, he lives by faith in Christ within him.
 And in the Book of Revelation, John talks about seeing a vision in which the
 resurrected and ascended Son of Man travels between seven churches

(churches), appearing in different ways in each church, and promising comfort, repentance, exhortation, and rewards. The text also shows that the Lord personally intervenes and works among each member of the church.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Lord, who is present in the midst of two or three people gathered in the name of the Lord, is not teaching them wealth, physical health, worldly management methods, or life skills, but is specifically dealing with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sin, which is the root of all things. First, how far should the church grow? We must grow up to be like Jesus Christ. Because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Paul refers to this as reaching the full stature of Christ (Ephesians 4:13). Because Peter participated in the divine nature, he will grow in faith, virtue, knowledge, self-control, patience, gentleness, and love (2 Peter 1:4-7). points to . Hebrews says that the goal is holiness. (Hebrews 12:14) This goal was not set by the apostles themselves, but is what our Lord originally wanted. The Lord's will to build my church was because the powers of Hades could not overcome it and the reason for exercising the keys to heaven was to build a "church with the image of the Lord." Therefore,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Lord, who first emphasized the kingdom of God (coming, words, parables, evidence, etc.) in the flow of the Gospel of Matthew, now shows the church and life within the church. Those who have learned me must learn us. Second, how can we reach that goal? We teach three methods: 1) We must strive to get rid of our sins. Since sin is a poison that breaks off fellowship with God, the impact of sin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church affects the entire church. And if a person commits a sin, and if he still refuses despite the advice of an individual, the advice of two or three witnesses, and the advice of the church, he should be excommunicated. (15-17) 2) We must strive to gather members

together. (19-20) The church has the nature of a gathering. We must gather together to pray together. Even the smallest units must come together. Because it is said that where people gather in the name of the Lord, the Lord is there. The book of Hebrews tells us not to follow the habit of those who forsake meeting together. (Hebrews 10:25) 3) We must strive to pray together. Verses 18-19 emphasize the authority of church discipline, but they also emphasize the authority of the church's intercessory prayers. When the church on earth prays, heaven answers. (Matthew 16:19) This is because the Lord listens to the church's prayers. Therefore, the church must stand on the foundation of the Word and exercise the privilege of prayer. We are blessed saints who show the goodness, truth, and righteousness of the Lord in our present reality by humbly offering ourselves for the Lord to work, becoming a member of the Lord, becoming the church, and obeying the Lord working within us. I wish you success.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마28:18-20)

아 전과거리가 나을 받고 집사이에 기가 가우 서에서 는 주님의 선교사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강조했는데 마태는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그 나라 백성의 중심된 책임을 전함으로 교회 는 전도하고 선교할 목적으로 존재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누가_ 명령하신 것입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 지신 왕이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아버지가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면서 곧 하나님의 특명인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나 구원의 역사를 명령하심 으로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이 구의을 색상이가 닐서 하여 하라고 마하신 경우니다 보기 임하신 왕이시며 온 세상에 친히 일하시는 능하신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 모든 재능,, 모든 건강을 이 명령수행을 우 해서 바쳐야합니다. 왜냐? 그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권세를 가진 왕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명 령을 내린 것입니다. 둘째, 그 왕은 교회에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제자 삼는 일입니다 (making disciples) 마가는 회개와 믿음 요한은 죄사함, 누가는 성령의 권능을 그리고 마태는 이 모든 주제를 포함한 그 나라의 제서품 가주지 전동제품은 생각하고 말함, 요니다. 인하을 후 (전도)와 2) 세례를 주어 교회의 일원으로 사는 일(예배), 그리고 3) 가르치는 일 (양육)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 순종의, 향동 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모든 족속이며 260개국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하여 존재함을 알고 전도하고, 선교에 열심을 품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배와 교육으로 영력을 갖추어야합 니다.

브니엘 신앙은 하나님의_형상회복, 진실,_의, 착함입니다. 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주께서 친히 교회 안에 현실화시키십니다. 이것은 구유의 현장에 시작되다가 변화산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와 빈 무덤 속에 나타난 데오피니(현현)의 영광을 보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인자와 진실의 영광을 항상 접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에 가까이 가 거기 머물 때 그의 진실과 사랑을 그대로 맛보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영화롭게 나타나기 위해 항상 취해야 할 중요한 자양분입니다. 이 복된 명령에 모두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Christ's Great Commission (Matthew 28:18-20)

In the book of Go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and the past was good, and there was a great deal of pressure between the housewives. In the book, it was emphasized that the Lord came to this world as a missionary. Matthew conveyed the central responsibility of the people of the country to obey the king's commands, and the church was to serve the purpose of evangelism and missionary work. It clearly taught me that it exists. First, who gave the command? Verse 18 says that the King, who holds the authority of heaven and earth, gave this command. When John said that he would send you into the world just as his father sent him, it was Christ's command and God's special command. Just as God commanded the history of creation and the history of salvation, God has now commanded the world to do this work that has been completed in Christ. This shows that he is the king who has come and is a powerful king who personally works on the whole world. All material possessions, all talents, and all health must be devoted to carrying out this

command. because? Because he is our king and we are his people. King Jesus Christ, who has the authority over heaven and earth, gave the Great Commission. Second, what did the king command the church? In a word, it is making disciples. Mark is about repentance and faith, John is about forgiveness of sins, Luke is abou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Matthew is the country's religious offering that includes all these topics. Electric products are about thinking and speaking. . After In Ha-eul (evangelism), 2) being baptized and living as a member of the church (worship), and 3) teaching (nurturing). In short, make it pure, human, obedient, and hyangdong. The target group is all tribes and 260 countries. Our church must know that it exists for this purpose, evangelize, and be passionate about missions. To do this, we must acquire spiritual power through worship and education. Peniel faith is the restoration of God's image, truth, righteousness, and goodness. The Lord, whose name is Manuel, Himself makes it a reality in the church. This refers to a life that begins at the scene of the manger and sees the glory of Theophani (the Epiphany)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on the cross, and in the empty tomb. It is a life that is in fact constantly in contact with the glory of Christ's mercy and truth. When we get close to the Bible every day and stay there, we can experience its truth and love. That is the vital nourishment that the church must always take in order to appear glorified. I pray that everyone will respond to this blessed command.

21세기 바벨론 (사47:1-47)

본문은 바벨론('신의 문이란 뜻)의 멸망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처녀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대 상업과 운명과 정치와 권력의 중심이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여 과부와 무자한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다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15) 바로 이 바벨론이 누구인가요?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는 멸망 받을 21세기 바벨론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 대답을 사도 요한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바벨론이 멸망하리라고 계시록에서 예언했습니다.

21세기의 바벨론은? 첫째,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바벨론은 멸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시록 18:21에 보면 바벨론은 큰 뗏돌 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망한다고 하여 실물 교육하듯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장래를 알고 장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 몸담고 어느 기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두신 이유는 그들을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저들은 하나님나라를 이루고 온 세상에 하나님나라를 확장시킬 책임이 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문화와 문명과 생활전통이 아니고 여호와 경외신앙을 접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경건한 자로 살 때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주의적 메시아관은 실패함) 교회는 세상을 벗어나 존재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그 사명이 증거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1)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 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2) 세상을 변화시켜야합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책망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새 힘을 받습니다. 일거리를 찾아야합니다. 장수와 평강도 주를 위해 일할 사명이 있을 때 주십니다.(행 1:8) 존귀- 인자와 진리로 매어라 부귀 - 첫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건강 - 여호와와 말씀의 지키라.(장3:1-10) 둘째, 육체의 소욕이 바벨론입니다. 요한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육신의 정성령의 소욕 안목의 정욕 - 영안의 임- 갈망이 생의 자랑 - 내생의 자랑 오늘 우리의 마음에 바벨론을 찾아 제하고 바벨론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기도의 습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한적한 곳에 물러가 기도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고기 뱃 속에서의 기도처럼 회개하며 책임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용사로 태어 나시기 바랍니다.

21st century Babylon (Isaiah 47:1-47)

The text is Isaiah's prophecy about the destruction of Babylon (meaning 'the gate of God'). Babylon, the center of ancient commerce, destiny, politics, and power, was so splendid and beautiful that she was called the virgin's daughter, and would be destroyed overnight, leaving her widowed and childless. What is more tragic is that we will never be saved again.(15) Who is this Babylon?

Who is the 21st century Babylon that will be destroyed and will never be able to rise again? We can hear the answer from Apostle John. Do not love the world and what is in the world. It was prophesied in the Book of Revelation that Babylon would be destroyed. What is the Babylon of the 21st century? First, the world is Babylon. Babylon, the world we live in, is destined to be destroyed. In Revelation 18:21, Babylon is destroyed like a great millstone being thrown into the sea, showing it as an object lesson. We must know the future of this land we live in and plan for it. We cannot live apart from this world. You must live in the world and live as someone who is in the worl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ut does not belong to the world. The reason God placed Israel in Canaan was because He had a mission for them. There, they had the responsibility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and expand it throughout the world, but they failed. how? It is not about culture, civilization, and lifestyle traditions, but about exposing people to the fear of Jehovah.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said in words, but something that God conveys to them when they themselves live as godly people. I am not spreading another idol. (The nationalistic view of the Messiah failed) The church cannot exist outside the world. The mission of being the salt of the earth and the light of the world is evidence of this. Although we live in the world, we must live a life that changes the world without relying on the world. 1) You should not rely on the world. The world cannot take God's place. The object of our trust must be God. We do not follow the world's values. 2) We must change the world. We receive new strength when we live before the Lord with a sense of duty to rebuke darkness with light. I need to find work. Longevity and peace are given when you have a mission to work for the Lord. (Acts 1:8) Honor - Bind yourself with mercy and truth. Wealth - Serve God as your first priority.

Health - Keep the word of the Lord. (Chapter 3:1-10) Second, the desires of the flesh are Babylon. John says three things. The spirit of the flesh, the desire of the Holy Spirit, the lust of the eyes - the presence of the spiritual eye - the longing - the pride of life - the pride of the next life Find Babylon in our hearts today and remove it, abandon the Babylonian lifestyle habits, and learn the habit of the Lord's prayer. Jesus retreated to a secluded place and prayed. You can pray because you are a citizen of God's kingdom. Like Jonah's prayer in the belly of the fish, repent, take responsibility, and pray with faith to receive God's grace. I hope you are born as a prayer warrior who changes the world.

Servant of Jehovah (Isaiah 49:1-7)

Who is the “servant of Jehovah” mentioned in Isaiah chapter 49? Looking at the flow of prophecy, he refers to the prophet himself (1), Israel (3), and Jesus Christ who will come in the New Testament. (6) This is because they are connected. It can be said that this is a preview of the work of the servant of Jesus Christ (see Chapter 42). We, who live in an age where everything has already been completed, are experiencing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of the servant of Jehovah that Isaiah received. How will he work and how will he minister? In verse 1, Isaiah says, “He called me from the womb,” and “He chose me” (7). This is because, like Isaiah, he was a prophet who urged his people to repent and was chosen as a servant of the word and a servant of the word in the end times, and he responded to his call. The evangelism instructions in Chapter 10 of the Gospel and the Great Commission in Matthew 28:19-20 are given only to limited people, including non-believers, but special grace is given to those who have a limited calling and election,

thereby strengthening their primitive faith. You must serve the Lord. (2 Peter 1:10) Second, the purpose of the calling is to display the glory of God, so those who have work in the Lord are happy. It is because it fulfills the purpose. (3) (Matthew 4:19, 5:13 John 15:5) Especially as 1 Corinthians 10:31 teaches, God's will is established from small things, and we make it a pleasure and do this. Third, giving up everything to gain is to glorify God. The servant of Jehovah always accomplishes the will of Jehovah with humility. (6-7) He is despised. Just as one is hated and is a servant of the ruler, one carries out God's will to the end through suffering. Therefore, a Christian is required to be a childlike servant of the Lord and die on the cross. With love, the genitals go out of place. No matter how difficult it is, if you have this heart of goodness, you will achieve success. We cannot imitate the servant of Jehovah, but we must now allow him to live in us and reveal his glory through me. This means devoting oneself to manifesting His image of righteousness, humanity, and God in daily life. Let us, who have been saved through the faithfulness of Jehovah's servants, lead our neighbors to a place of salvation by serving them.

여호와와 종 (사49:1-7)

이사야 49장에 나온 “여호와와 종”은 누구인가? 예언의 흐름을 보아 그는 선지자 자신(1), 혹은 이스라엘(3)을 가리키며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6)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을 미리 보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2장 참조) 이미 모두 완성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종의 예언 성취를 맛보고 있다. 이사야가 받은 여호와와 종은 어떻게 시작했으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첫째, 그는 여호와가 택한 자이다. 1절에 “태에서 나를 부르셨 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7)고 했다. 유다의 망국에 부름받은 이사야는 자기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며 소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다. 이사야처럼 우리고 마지막 때에 복음의 종, 말씀의 종 으로 선택되어 그 일을 수행할 입장에 있다. 그의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마태복음 10장의 전도지침이나 마28:19-20의 대위임령은 제한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다. 일반은총은 믿지 않는 자도 포함하나 특별은총은 제한된 부름이 있는 자의 것이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여 원시적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한다. (벧후1:10) 둘째, 여호와와 영광을 나타낼 자이다.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다. 소망 있는 부르심이기때문에 주 안에 일거리가 있는 자는 행복하다. 이는 택하심의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이다.(3)(마4:19, 5:13 요15:5) 특히 고전10:31이 가르치는 대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전부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셋째, 겸손의 성김으로 여호와와 뜻을 이룰 자이다. 여호와와 종은 언제나 겸손의 성김으로 이

일을 이룬다.(6-7)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관원의 종이 되어 여호와를 성기듯이 고난 속에서도 하 나님의 뜻을 끝까지 수행한다. 이것은 대접하는 일로 성취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이 같은 성김이 요구된다. 여호와와의 종의 십자가 죽으심처럼 원수를 사랑으로 성기는 자리가 지 나 간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이 성김의 마음을 가지면 형통의 역사를 얻는다. 우리는 여호와와의 종을 흉내 낼 수는 없으나 우리는 이제 그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 것은 그의 형상인 의, 인, 신을 일상에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는 것 이다. 여호와와의 종의 성김으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이웃을 섬김으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자.

빛이 있으라 (창 1:1-5)

창조시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1:4에 빛이 있으라"고 하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 빛은 첫 번 창조물입니다. 이 빛은 셋째날 만든 해달 별과 구분되는 빛입니다. 그 빛은 물질을 만들기 전 더 근원적인 성격을 가진 빛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 오르"는 모든 도덕 영적 물질계, 육계, 영계의 근본이며 원천입니다. 요한복음 1:1에 언급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빛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골1:17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 주도 되며 만물창조의 목적도 되십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한마디로 만물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빛입니다. 마치 동방박사의 별이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빛은 세상 끝, 영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3-5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원 문에 장을 뜻하는 엘로힘 하나님이며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성부는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시고 성령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만물창조 역사와 같이 재창조에도 삼위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더 완성된 형태인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성부는 우리에게 말씀 하시고 성자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적용하시고 구체 화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고후5:17) 셋째, 그 빛은 아름다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착한 것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첫 창조를 보고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진선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진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전에 4가지 특징, 혼돈, 흑암, 공허, 깊음이 창조 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빛이 좋았습니다. 자연 만물의 근본인 빛도 아름답지만 그 근본인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혼돈이 질서로 (거 라사 광인), 깊이 평지로(스룹바벨), 흑이 빛으로(실로암 소경) 그리고 공허가 생명 충만으로(나사로의 부활) 변화되고 계속 날로 새로움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의 일입니다. 빛 의 창조로 온 세계가 창조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근본 빛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역사의 주인이고 근본이 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를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 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의 역사를 이룰 빛의 사람들입니다.

Let there be light (Genesis 1:1-5)

The first thing God created during creation was light. In 1:4, it is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First, that light is the first creation. This light is a light that is distinct from the sun, moon, and stars created on the third day. That light was a more fundamental light before creating matter. It is a light with a personality. So, in Hebrew, “Ha Or” is the root and source of all moral, spiritual, material, and spiritual worlds, as the Word from the beginning mentioned in John 1:1 is light. In Colossians 1:17, Christ is the

creator and purpose of all things.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It is a light that leads to Christ, just as the star of the Magi leads to the baby Jesus. Second, God created that light to be a symbol of Christ and have an impact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nd eternity. Who is God? In verses 3-5, God created light and said that it was good, and he called it Elohim, which means day and room. He is the Trinity. The Father is the One who spoke, and the Holy Spirit is the One who fulfills the Word, and the work of the Trinity appears in the creation of all things. At this time, this work begins and is accomplished through the words of the Bible in a more complete form, the Son fulfills the words, and the Holy Spirit applies and embodies the words. 2 Corinthians 5:17) Third, the light came from a good God. Jin Seon-mi said that good things came from God and that they were good. Jinseon said that there was only God. Before creation, there were four characteristics: chaos, darkness, emptiness, and the depth. After creation, God saw that they were good. The light that God created was good. Light, the basis of all things in nature, is beautiful, but Christ, the basis, is even more beautiful. When anyone meets Christ, chaos is transformed into order (the Gerasa madman), depth into plainness (Zerubbabel), darkness into light (the blind man of Siloam), and emptiness into fullness of life (the resurrection of Lazarus), and it continues to become new every day. no see. This work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s we think about how the entire world was created through the creation of light, we came to think of Christ, the fundamental light. Because He is the owner, foundation, and beginning of history, Christians enjoy amazing grace by believing in Him. Christians are people of light who will carry out the work of creation.

달란트비유(마25:14-30)

본문의 비유는 한 임금이 세 사랑의 종에게 5, 2, 1 달란트의 돈을 맡기고 장사하라는 명을 하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 회계보고를 받고 그 충성도에 따라 상급을 베푸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맡은 일의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원주의가 팽배한 기독교인의 사상 속에 우리는 주어진 현실의 충성이 바로 경 성하는 생활임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종말시대에 주를 위해 충성할까요? 첫째,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종말에 많은 것, 큰 것 하려는 자세 보다 주어진 현실에 자기의 일에 가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진리의 삶, 복의 삶은 세상과 다릅니다. 주님은 친 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21, 23 절에 보면 지 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이 상급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아 '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 습니다. 욥을 보세요. 그가 작은 일 곧, 그의 마음과 자기 자녀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은 벌써 일하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났지만 다시 회개하 고 탄식합니다. 그때 욥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9:11) 주님은 그 속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이미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주인의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1, 23절에 보면 보고 하는 종의 충성이 확인되자 주인은 두가지 보상을 주셨습니다. 남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현실 의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백배나 받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성 실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세상에

나누는데 귀한 통로로 사용하 실 것입니다. 2)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상급입니다. 천국의 상급의 세밀한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란 말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악입니다. 주인을 모르거나 달란트 가치를 모를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게으름입니다. 악과 게으름은 통하여 충성의 반대가 게으름인데 영적 나태함과 안일을 가리킵니다. 장언처럼 항상 영적 근면을 힘 써야 합니다. 어떻게 근면할까요? 1) 범사에 주를 인정해야합니다. 2)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합니다. 3) 기도에 힘써야합니다. 4) 남을 도울 목표를 갖고 희생해야합니다. 마태의 종말사상에 가르치는 대로 현실의 충성으로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arable of the Talents (Matthew 25:14-30)

The parable in the text focuses on the fact that a king entrusted 5, 2, and 1 talents of money to three loving servants and ordered them to do business, went to a foreign country, returned, received an accounting report, and rewarded them according to their loyalty. It teaches how important loyalty is. In Christian thought, where dualism is prevalent, I believe that we must learn that loyalty to the given reality is a life of watchfulness. How can we be faithful to the Lord in the end times? First, you must be sincere in small things. Rather than trying to do many things or big things in the end, you should recognize the value of your work in the given reality and work sincerely. A life of truth and a life of blessings is different from the world. The Lord Himself spoke and acted before God. In verses 21 and 23, the reason for

receiving a reward was that one was faithful in the smallest of things. Ah, Abraham, Isaac, Jacob, and Joseph were all faithful in small things. Look at Job. When he sees the little things, his heart and the hearts of his children, God has already worked. He was still in trouble. Although I began to resent God, I repented and lamented again. Then Job said, “He passed before me, but I did not see him; he moved before me, but I did not perceive him.” (9:11)

The Lord worked in it. When you are faithful in the little things, please believe that He is already working in them. Second, we must have a heart that expects rewards from our master. In verses 21 and 23, when the reporting servant's loyalty was confirmed, the master gave him two rewards. He gave more than he left behind. It is the reward of reality. You will receive 100 times more on this earth. When we are faithful in small things, God will use us as a precious channel to share that blessing with the world. 2) He gave us the privilege of participating in our master's joy. It is the reward of heaven. We do not know the details of heavenly rewards. This is because it is expressed in words such as the crown of life and the crown of righteousness. Third, we must guard against laziness. Laziness is a vice. This is the result of not knowing the owner or the value of the talen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laziness. The opposite of loyalty is laziness, which refers to spiritual laziness and complacency. As the saying goes, we must always strive for spiritual diligence. How to be diligent? 1) We must acknowledge the Lord in everything. 2) You must read the Bible diligently. 3) We must focus on prayer. 4) You must make sacrifices with the goal of helping others. Please prepare for the Second Coming with realistic loyalty as taught in Matthew's eschatology.

하나님의 형상(창1:22-27)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에 이것을 바로 알 때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되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진흙으로 이겨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령이 되게하실 때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과 우리를 동격으로 세차레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엄을 가리키는 것도 되지만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한 뜻이 함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 것처럼 우리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창1:27-28)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된 역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가축과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많이 받으시려고 자기를 닮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이 상위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이 완성된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다.(엡1: 롬8:) 개인 영혼의 구원은 개인의 창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창조 때에 성부는 말씀하시고 성자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은 말씀대로 창조를 실행하신 분이시듯이 인간을 만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28절에 인간을 만드신 후 먼저

하나님은 4가지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1)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홍수 후에도 이것은 계속 되었습니다. (창9:1) 복이란 히브리어

말이 예배하다는 말과 통합니다. 예배 할 때 무릎을 꿇을 때 복이

임합니다.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 시기 바랍니다. 죄가 이 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2)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3)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형상이 바로 이것을 행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나타내는 것이 힘이고 능력임을 알고 이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할까요? 죄를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다루시며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을 통해 인간의 하나님

형상 회복은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됨을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회복과 보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롬 12:1-2)

Image of God (Genesis 1:22-27)

The main text is that peopl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so when we understand this correctly, we can learn who humans are, what the purpose of human life is, and how to live correctly. What does it mean to bear the image of God? First, we are made with the same nature as God. What was unique about making humans into living creatures by molding them out of clay and breathing life into their nostrils was that they were made in the image of God.

In verse 26, God and we are said to be equal three times. This may refer to majesty, but it especially implies an emphasis on God's character. This is because, just as the word “we” is plural and not singular, “we” is an expression that emphasizes the character of the Trinity of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Genesis 1:27-28) This refers to the united work of God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This is because in verse 15, God, who created livestock and animals according to their kinds, created humans as beings of the same kind as God, so that He could receive the most glory by making humans in His own image. Apostle Paul, who testified that salvation is the work of a higher God, clearly showed that the Father planned it, the Son completed it, and the Holy Spirit applied this completed salvation to individuals (Ephesians 1: Romans 8:). Salvation is a picture that shows the creation of an individual. Just as the Father spoke, the Son appeared through words, and the Holy Spirit carried out creation according to his words, the higher unity of God clearly appeared when creating human beings. , In verse 28, after creating humans, God clearly declared four things: (1) This continued even after Noah's flood. :1) The Hebrew word for worship means that when you bow your knees, you will be filled with blessings. However, in Christ, this blessing has become a curse. This has been restored. (2) He made us fruitful and prospered. (3) He pursued this, knowing that the image is the source of the ability to do this. Third, how can we preserve the image of God? It is only through Christ's redemption of sin, dealing with Cain, the first murderer, and restoring the image of God to humans through Abel, the first martyr. This is because offering a living sacrifice is the only way to restore and preserve the sin problem. (Romans 12:1-2)

궁창창조 (창 1:6-8)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둘째 날 역시 궁창을 만들어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심으로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 셧습니다..

첫째, 궁창은 하늘과 땅을 구분했습니다. 궁창이란 라키아"는 동사로
 사용될 때 철이나 얼음덩이를 조각하여 깨어내는 의미로 사
 용되었습니다.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확장(extending)을 의미합니 다. 이
 궁창이 생김으로 위와 아래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분리된 윗 물(구름)과
 아랫물(바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서로 조화시키는 것 은 성경적 구원
 성격을 보여주는 최초의 상징주의라고 말할 수 있 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리와 연합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창3:15) 뱀과의 분리와 하나 님과의 연합,
 계3:20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와의 깊은 교제의 연합이 일어나며
 요5:24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 로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복있는 자를 정의할 때 무엇이라 합니까?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 자인데(좌행참)
 이것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일입 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따를 때 진정한 분리와 연합이 일 어나기 때문입니다.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고 가물어도 잎이 청청 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궁창은 윗물인 구름과 아랫물인 바다를 나누고 넷째 날에 창조될
 조류들과 어류들의 활동무대가 되었습니다. (20-21) 궁창창 조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심으로 어류와 조류로 채워 온 땅을 하 나님의 사랑과
 진실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 서로 입 맞추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치우 치기를 잘합니까?
 목사가 지옥은 없다는 책을 써서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는데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국이나 지옥 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의 일을 생각하면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물질 우상 섬기는 죄를 경계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날마다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게 하려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있는 말씀으로 분리하시고 연합하시는 창조는 구속에도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엘로 하나님만이 창조와 재창조를 행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명령으로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와 지배와 권위는 말씀이 떨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성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진정한 분리와 조화와 채움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Creation of the firmament (Genesis 1:6-8)

God, who created the light symbolizing Christ, also showed a picture of salvation on the second day by creating the firmament and separating the sky and the sea. First, the firmament separated the sky and the earth. When used as a verb, the word 'rakia', firmament, is used to mean breaking out of a block of iron or ice by carving it out. It means extending to fill an empty space. This firmament is created to separate the upper and lower parts and separate them. It can be said that the harmony between the upper water (clouds) and the lower water (sea) and the sky and the sea is the first symbolism that shows the biblical nature of salvation, as if events of separation and unity occur wherever Christ enters. (Genesis 3:15) Separation from the serpent and union with God. When Christ enters in Revelation 3:20, a union of deep fellowship

with Him occurs. In John 5:24, from death to life and darkness. It is said that He will move into the light. What does Psalm 1 say when defining a blessed person? He or she is one who does not follow the ways of sinners, the scheming of the wicked, or the position of arrogants. This is what happens when one meditates on the law of the Lord day and night. Meditating on the Word means thinking deeply about Christ. When we acknowledge and follow Christ as Lord, true separation and unity arise, and we become fruitful and green even in times of drought. Second, the firmament divided the upper water, the clouds, and the lower water, the sea, and became a stage for the activities of the birds and fish that would be created on the fourth day. (20-21) By dividing the upper water and the lower water with the firmament, the land was filled with fish and birds. God gave us a world where God's love and truth kiss each other. How can people be so biased that they confuse people by writing books saying there is no hell? We must return to the Bible because we do not center on Christ and live as if there is no heaven or hell. And when we think about the events of the fourth day, we see that God has prepared everything for us. Thirdly, the intention here is to guard against the sin of serving material idols and seek daily bread to live a God-centered life. The creation of separation and unity through God's powerful word is also reflected in redemption. Because only Elo God can create and re-create. God, who created the firmament by command, created heaven. The country's rule, control, and authority arise when the Word falls. Because his words have the potential to be fulfilled. Let us pray for evangelization in Japan. What they need is this word and the gospel. Please pray for true separation, harmony, and filling to occur.

본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신 일을 통해 보여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자기를 구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3 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고 그를 구한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이 즐거움을 가진
신자로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4) 본 성도
는 어떻게 그의 얼굴을 구했나요?(1-2) 감사하고, 전파하고, 찬양하고,
그의 능력을 얻기 위해 그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즐거움으로 산 것입니다. 기드온의 말년의
실패는 하나님에게 둔 즐거움을 세상 정욕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처럼 세상 명예를
추구하는 탐욕 때문에 매우 비참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그의
얼굴을 구하여 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둘째,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즐거움을 얻습니다. 8- 22) 시인은 역사 속에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이 요셉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방
객이 되어 (12) 기근을 당하는 때에 (16) 요셉을 주관자로 세우시는
일(20-22)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함이었습니 다. 수천 년간 신 실하게 이루어진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
구원이 얼마나 진실한가 에 정말 놀라게 됩니다. 이 언약을 무너지게
하려는 운동이 수없 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 진리의 파수가 어려운 때 복음 전파란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한 백부장이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믿은 것처럼 제자들이 그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한 장면을 보고 주께 경배한 것은 언약의 신실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매튜 헨리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자기 서제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라고 말한 고백이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체험을 통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언약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God of the Covenant (Psalm 105:1-22) 2007. 12.5

This psalm is a hymn that sings to God who is faithful to the covenant as shown through his actions throughout Israel's history. This hymn comes from a heart that rejoices in God who saved him. Verse 3 says, "The heart of those who boast in his holy name and save him is joyful." As a believer who has this joy, how can I obtain the joy of salvation achieved through the covenant? First, you can obtain it when you seek the face of God. (4) How did the believers seek His face? (1-2) They sought His face to give thanks, preach, praise, and gain His power. I live with the joy of seeing the face of the faithful God in a world of lies. Gideon's failure in his later years was because he transferred his joy from God to worldly lust. He had many wives and was very miserable because of his greed for worldly fame, like a seed falling among thorns. The sufferings that believers face are the best opportunity to seek his face and receive answers. Second, we gain joy from fellowship with a faithful God. 8- 22) The poet looked at how the Abrahamic Covenant, Isaac's Covenant, and Jacob's Covenant, which continued from Abraham to Joseph

throughout history, were fulfilled in Joseph. Being a foreigner (12) and experiencing famine (16) and appointing Joseph as ruler (20-22) were all to faithfully fulfill the covenant that God had made. When we think of a covenant faithfully fulfilled over thousands of years, we are truly amazed at how true our salvation i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countless movements to destroy this covenant, God Himself has accomplished it and will accomplish it. When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truth of the Bible, spreading the gospel means believing and following the Bible as it is. Just as a centurion believed in the authority of his words, the reason the disciples worshiped the Lord after seeing him calm the storm with the words that came out of his mouth was because they realized the faithfulness of the covenant. We who have been saved by believing in this covenant of grace are truly happy people. Matthew Henry's confession that the happiest moment of his life was when he realized the word of God in his writings should be our confession as we serve the God of the covenant. I hope that we will become covenant people who enjoy true joy through the experience of loving the Bible deeply.

첫 제사 (창4:1-15)

에덴을 떠난 인간이 처음 배운 것이 예배였습니다. 아담이 두 아들이 태어나자 이것을 가르친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 그들이 성장한 후에 제단을 쌓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참 제사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의 길입니다. 1-4절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 창조하신 땅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죽음이 찾아왔으나 거기서 건지 받는 길은 구원의 상징주인 생명나무, 여인의 후손, 가죽옷 그리고 피 흘림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농사짓고 양 치면서 첫 소출과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흔히 가인이 드린 제물이 곡식이라 하여 피 흘리지 않은 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소제도 곡식의 피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11:4)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낙원이 되었으나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참 복락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불신앙을 가진 증거입니다. 둘째, 자원적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제사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한 참여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의지로 제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공로는 아니지만 그 수고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바로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릇된 ! 제사로 가인은

악독에 사로잡혔습니다. 죄가 운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덮쳐
 안색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에게 수치가
 발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살인독이 가득 차 들판에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순교입니다. 주님이 아벨의 피에서 사
 가랴의 피까지를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말씀 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게는 죄책감이 몰려왔고 중압감에 사로 잡 혔고
 유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 셋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아벨이 제단을 쌓을 때,하 나님은 불로 응답한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화를 당한 것처럼 끔찍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죽었으나 말하는 산 자가 되었습니 다. 반면 가인은 문화 건설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 영광 의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친히 일하셨기 때문입니 다. 그 후 성령은 에노스 때 부어졌고
 이스라엘의 법궤 위에 임했 습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 니다. 엘리야가 불 병거 탄 것처럼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살아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여 지금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진실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응답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 랍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이기는 길입니다.

First sacrifice (Genesis 4:1-15)

The first thing humans learned after leaving Eden was worship. Adam taught
 this to his two sons when they were born, and later, after they grew up, he
 built an altar. What is a true sacrifice? First, it is a path to restoration of
 fellowship with God. Verses 1-4 After Adam and Eve were driven out of Eden,

they gave birth to a son on the earth that God had created. Death came as fellowship with God was cut off, but the only way to be saved from it was through the symbolism of salvation: the tree of life, the woman's offspring, leather clothes, and the shedding of blood. So the two sons farmed and tended sheep and offered their first crop and first child as a sacrifice. Some people often say that Cain's offering was grain and that it was a sacrifice without shedding blood, but this is not a problem because the grain offering was also the blood of grain. There was a problem with faith. (11:4) By building an altar to God with faith, the path to salvation opens. Even though it has become paradise lost, you can experience the true paradise where fellowship with God is restored through the sacrifice of faith. Cain failed to offer a sacrifice of faith. In other words, it was not a worship service of spirit and truth. This is evidence of his unbelief. Second, it requires resourceful effor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crifice are shown by the fact that Abel and his offering were accepted, but Cain and his offering were not accepted. God desires participation through human effort. It means participating in his ancestral rites out of one's own will. Although human labor is not meritorious, God will meet us through the obedience of that labor. This is because this hard work is another expression of faith. Cain did not offer himself. That is sin. Wrong! As a sacrifice, Cain was possessed by wickedness. Sin was waiting in front of him, and it attacked him, making him look bad. Shame developed in humans who had lost the image of God, and their complexion changed. It was filled with murderous poison and killed Abel in the field. This is the first martyrdom. The Lord spoke of what would happen in the end times, from the blood of Abel to the blood of Zacharias. He was overcome with guilt, overwhelmed, and afraid to take advantage. ▪ Third, the image of God is restored. When

Abel built the altar, God did not respond with fire. On the contrary, something terrible happened, as if something had happened. However, although he died, he became a living person who spoke. On the other hand, Cain became a leading figure in cultural construction. This is because the Holy Spirit of glory worked personally to restore the image of God. Afterwards,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during the time of Enos and came upon the Ark of the Covenant in Israel. This is because onl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makes fellowship with God possible. Just as Elijah rode in a chariot of fire, Abel became a successful worshiper and is alive and speaking today. Filled with God's character, he is now working beyond time and place. I hope that by offering a true sacrifice and shedding blood, you will go to a place where God responds with the Holy Spirit. This is the way to win this generation.

겸손의 표징 (창9:8-10)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으로 이루심을 500여년이 지난 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에 연속하여 주님은 모든 경손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모두 완성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겸손의 표징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첫째, 숨은 경손을 드러내셨습니다. 홍수 전에 모두 끌어버리시려고 하셨으나 심판한 후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노아와 생물과도 언약을 세우시기를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확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이렇게 크십니다. 니느웨성을 보더라도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12만명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어 모두 구원하심은 그의 숨은 사랑과 긍휼이 드러난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애절한 사연을 보시고도 긍휼히 여기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시고 살려 그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도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주목하시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숨은 겸손한 사랑은 더 크심을 알고 즉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사55:) 둘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노아는 아담과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새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학자 월트키는 5가지로 설명하기를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되었고 (1:26-28 9:6) 2)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게 명하였고(1:18-30 9:1-7) 3) 하나님과 동행했고(3:8, 6:9) 4) 동물을 다 스렸고(3:8,

6:9) 5) 아담은 동물 이름을 붙였으나 회복된 아담은 그를 구하였다. (8:2, 9:2)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 아담 노아에게 절대 보호의 확증으로 무지개를 더하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구름에 두시고 "내 무지개"로 말씀하시고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진실로 확증하는 증표였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표징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스는 이 무지개를 할레(세레)와 같은 증표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선이 비침으로 무지개가 형성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 보호와 일반은총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무지개의 표징을 받은 자입니다. 셋째, 피 흘리심의 경손으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물과 구원은 관련이 많습니다. 물에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것처럼 홍수에서 8식구를 구하시고,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시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물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을 구하심처럼 우리를 홍수 같은 죄에서 건져주셨음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홍해와 구름아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친히 물 속까지 들어가 셔서 건지셨음을 보인 것입니다. 내대신 저주와 죄책과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의 겸손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노아를 통해 보여주신 낮아지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같이하기를 축원합니다.

A sign of Humility (Genesis 9:8-10)

According to the prophecy of the prophet Zechariah, the Messiah rode a young donkey and showed his fulfillment through humility over 500 years later. Subsequently, the Lord completed the salvation of His people by bearing

the cross, the pinnacle of all reverence. In the text, how did God show a sign of humility through Noah? First, he revealed his hidden disrespect. He intended to wipe them all out before the flood, but after the judgment, God made a promise not to judge with water again. This is God's humility. He saw the misery of sin and had mercy on it. He established a covenant with Noah and the living creatures, confirming that he would not judge them again with a flood. God's mercy and love are so great. Even when looking at the city of Nineveh, God took pity on the 120,000 people who were unable to distinguish between left and right. He gave strength to Jonah's message and saved them all, revealing his hidden love and compassion. When he saw the sad story of the widow in Nainseong, he had mercy on her and touched her coffin. He commanded the young man to rise, and gave him alive to his mother. We who have been saved by that great love must look upon the humble Lord and go forth humbly today. As you pay attention to the Lord who humbled himself to the point of death, I hope you will return immediately knowing that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God's hidden humble love is greater. (Isaiah 55:) Second, God confirmed salvation by placing a rainbow in the cloud. Noah is like Adam. In what ways can we say that we are the new Adam? Old Testament scholar Waltke explains five things: 1) He was connected to the image of God (1:26-28 9:6), 2) He commanded the earth to be fruitful and prosper (1:18-30, 9:1-1). 3) He walked with God (3:8, 6:9) 4) ruled over animals (3:8, 6:9) 5) Adam named the animals, but the restored Adam saved them. (8:2, 9:2) God added a rainbow to the new Adam, Noah, as an assurance of absolute protection. He placed that rainbow in the cloud and spoke of it as "my rainbow," calling it an eternal sign. This was a proof of God's love as his truth. It is a sign like the cross. Because when I see a rainbow, I think of the

confirmation of God's love. Boss sees this rainbow as a sign similar to circumcision (baptism). Just as a rainbow is formed by the shining of the sun's rays, that protection and common grace continues through the grace of Christ. In that sense, Christians are those who have received the sign of the rainbow.

third. He saved us through the shedding of his blood. Water and salvation are closely related. Just as He created heaven and earth from water, He saved eight families from the flood, rescued Israel from the Red Sea, and told them to cross the water before entering Canaan. These things show that, just as He saved Israel, He saved us from a flood of sin. So, in 1 Corinthians chapter 10, it says that Israel was baptized in the Red Sea and under a cloud. This shows that He Himself went into the water and rescued them. He accepted the curse, guilt, and everything on my behalf. His humility saved us. I pray that the grace of humility shown through Noah will be with you.

하나님의 안식 (창2:1-3)

창조의 일을 마친 후 일곱째 날에 창조자 하나님이 안식하심은 훗날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기초가 되었고 인류가 그 날을 지킴으로 준비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게 제 4계명(출20:8-10)으로 규정하여 바로 지키도록 한 것과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하시며 안식일을 바로 지킬 것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케 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친히 안식의 본을 보이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는 뜻이 있음을 보입니다. 시간상, 아당을 만들자마자 "복과 사명을 주실 때가 여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또 다시 천지창조의 내용을 서술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안식이 나온 것을 보면 안식일의 계명은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무언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만물창조의 중심 이라면 2장은 인간중심의 창조를 다시 서술한 것이라고 함) 직접적인 명령은 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 주시고자 계획된 제도였습니다. 훗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안식일 문제를 중대하게 취급한 것을 보면(안식일을 범하고 죽는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하신 후 더 나은 창조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가진 인류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맛보지 못한 그 안식,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일을 금하고
 존귀한 날로 여겨 거룩히 지키면 야곱의 업을 얻고 높은 곳을 다니게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안식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창조를 다 마치시고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친
 다음에는 안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는 안식 곧, 낙원이 시작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의 최상의 안식은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수고하면서
 성령을 통하여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안식
 처럼 거듭날 때 받은 안식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안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식은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며 안식을 누리는 본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이란 하나님과 그가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일반은총이 모든 복이고 그것을 누리게 하심도 복입니다. 죄 사함이
 복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형상을 계속 유지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심혈을 쏟아야 합니다. 6일간 더러워진 우리 영혼이
 안식일에 예배함으로 이 안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God's Rest (Genesis 2:1-3)

God the Creator's rest on the seventh day after completing the work of creation became the basis for later establishing the Sabbath, and allowed mankind to enjoy the grace provided by observing that day. God's people, Israel, were prescribed the fourth commandment (Exodus 20:8-10) and were to keep it right, and the Lord said that the Lord of the Sabbath is the Son of Man and commanded them to keep the Sabbath properly to enable them to participate in God's rest. It had meaning. Why did God allow us to keep the Sabbath by showing us an example of rest? First, because God's rest is the purpose of creation. The purpose of creation is for the creation to glorify God, which shows that the purpose of creation is to enable the creation to enter into God's rest. In terms of time, as soon as Adam was created, "the sixth day is when God gives blessings and missions. And when we come to Chapter 2 and describe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again, God's rest is mentioned first. The commandment of the Sabbath is an unspoken word first given to Adam. (Chapter 1 is said to be the center of creation of all things, while Chapter 2 is a re-description of human-centered creation.) Although it was not a direct command, it was a system planned to be given to humans in the future as a theocratic nation. If you look at the seriousness of treating the Sabbath and dying, you can see why it is so important. After creation, it is a better world of creation, which is God's kingdom, and eternal life before the throne of God's glory. The author of Hebrews said that there is a rest that Israel has not experienced and that we must strive to enter that rest. Second, it is said that if we abstain from doing personal things and keep it holy by considering it an honorable day, we will obtain Jacob's karma and travel to high places. Second, it is said in verse 1 that God rested after completing creation. Just as there is

rest after completion, we are shown in advance that after all the work of redemption in this world is over, the rest, that is, paradise, begins. Our best rest while on this earth is through the Holy Spirit as we labor in accomplishing the work of salvation. It is said that we can enjoy the rest given when we were born again, like the rest after the conquest of Canaan, but there is still a better rest for us by keeping the Sabbath. God's rest not only shows the purpose of creation and provides an example of enjoying rest, but blessings are all blessings from God and the favors He gives, and the forgiveness of sins is also a blessing. This is a blessing. However, the most important blessing is restoring the image of God. It's about maintaining that shape. We must pour out our hearts and minds to reveal the image of God. We hope that our souls, which have been defiled for six days, will receive this rest by worshiping on the Sabbath.

은혜를 받은 노아 (창6:1-22)

본문은 인류 역사에 단 한번 일어난 홍수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이 지나갔는지를 보여줌으로서 재림 직전의 불심판을 잘 준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온 땅의 체질이 풀어지는 심판이 온다고 경고합니다.(벧후3:12) 첫째, 세상은 죄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창6:1-4에 보면 노아 직전은 죄 때문에 망할 위기적 상황임을 보여주는데 창조질서의 기본인 가정 제도에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는 일로 사망이 왔는데 그 죄는 발전하여 하나 님이 만드신 결혼을 탕욕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부패로 온 세상은 죄가 가득 차, 외적으로 죄악의 운명 문화가 하늘을 찔렀고 내적으로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5) 전적 부패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신 것을 보면 죄가 극에 달했을 뿐 아니라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된 것을 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 심판을 단행하시는 원인이었습니다.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시대의 죄란 어떠한가요? 죄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인데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의, 인(거룩), 신의 반대 현상, 불의, 강포, 불 경건이 팽배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심 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의란 절대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모든 것의 기초이고 하나님의 거룩, 의, 신 은 이웃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의입니다. 물론 그 기초는

진실입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목적은 의를 충만케 하시려는 것 입니다. 개인의 마음에도 이 의를 가지지 않으면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이 명이란 것이 밸런스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의는 동시에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이 노아 와 그의 식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과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을 상징주의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20년간의 기회를 주어 방주를 짓고 거기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8식구와 소수의 생물들이었습니다. 셋째,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 이지만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7장 마지막에 보면 노아의 8식구와 짐승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 심판에서 건 짐 받을 자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영생가진 자며 죄사함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보다 더 심각한 일이 예상되는 이때 우리 리는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합니다.

Noah received grace (Genesis 6:1-22)

The text teaches us to prepare well for the judgment by fire just before the Second Coming by showing how the flood judgment, which occurred only once in human history, began and what process it went through. Apostle Peter warns that a judgment is coming in which the constitution of the entire earth

will be broken. (2 Peter 3:12) First, the world is destroyed because of sin. Genesis 6:1-4 shows that the period just before Noah was in a critical situation of ruin because of sin, because there was chaos in the family system, which was the basis of the created order. Death came from eating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but that sin developed into the use of marriage, which God had created, as a tool for lust. Due to the corruption of the family, the whole world is filled with sin, and the culture of destiny and sin on the outside pierces the sky, and on the inside, the thoughts and plans of the heart are always evil. (5) It shows a state of total corruption. When we see that God lamented that He had created man, it shows not only that sin has reached its peak, but also that God's desire to receive glory through man continues. In short, the image of God was changed into the image of the devil. This was the cause of the great judgment. It appears in verse 7. What is sin like in our time? Sin is anything that falls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when put together, righteousness, humanity (holiness), which is God's character, phenomena that are contrary to God, injustice, violence, and ungodliness were prevalent. Second, it is true that God closes the door of the ark. This sin leads to judgment because of God's righteousness. Righteousness is an absolute law. God's truth is the foundation of everything, and God's holiness, righteousness, and godliness are characteristics that are achieved in neighborly relationships. So maintaining this balance is righteousness. Of course, the foundation is true. God's purpose in wiping out that era is to fill it with righteousness. He does not get satisfaction unless he also has objection in the individual's heart. This name is a balance issue. But this righteousness is at the same time connected to love. So God chose one person, and this person was Noah and his family. This symbolizes salvation through the woman's descendants and the shedding

of blood. That's why he told us to prepare an ark. He gave them 120 years to build an ark and come into it. But he was a family of eight and a few creatures. Third, only those in the ark will be saved. Although it was a judgment due to sin, God prepared an ark to save the chosen people. Who is saved? This is the person in the ark. At the end of Chapter 7, only Noah's family of eight and their animals were saved. Who will receive the burden from the fiery judgment? Only those who are in Christ are saved. Being in Christ means having eternal life and receiving forgiveness of sins. There is no other name by which we can be saved other than Jesus. In this time when something more serious than the days of Noah is expected, we must look to the Lord and go out in faith.

복의 근원이 되리라(창12:1-9)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1:1)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와 같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며 그를 통해 참 믿음의 실상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함으로 참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1) 그는 셈, 에벨, 벨렉을 거쳐 데라에게서 출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받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무조건적 구원을 보입니다.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는가를 다 설명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그를 먼저 선택하여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15:6에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이것을 강조하셨고(요10:27) 요6:44에는 주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주께로 올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엡1:5 롭 8:28-30) 이것을 알면 신앙이 깊어집니다. 원시안을 가집니다.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아니까 그렇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죄인인 한 여인처럼 참된 헌신자가 됩니다.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벧후1:9-10) 둘째, 그는 복의 근원으로 살았습니다.(2-3)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일방적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갑자기 계시가 임했습니다. 바울처럼 모세처럼 1 예고 없이 무조건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3가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창대한 이름, 큰 민족,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중에 세 번째 복은 위대한 복입니다. 아브라함 생애에 다 받았는 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는 그의 자기 몫을 누리다가 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복의 근원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의 근원이란 그리스도, 구원 그리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갈3:14) 우리는 아브라함 보다 더 행복 한 삶을 살아가야합니다. 셋째, 순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4) 이 약속은 사실 하나님과 맺을 은혜언약의 계승을 보인 것인데 그는 어떻게 응답했는가요? 에 노스와 에녹처럼 아벨처럼 절대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은 일입니다. 이것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신령 과 진리의 예배에 총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약속의 실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고자라고 열매 없을 것이 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사56:3-5) 오늘날 우리 앞에는 아브 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삶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는 곳마다 나 때 문에 복을 받는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 때 그렇게 됩니다.

It will be a source of blessings (Genesis 12:1-9)

The reason we focus on Abraham is because Jesus Christ came as his descendant. (Matthew 1:1) And because Abraham's faith was the same as ours, he was the ancestor of our faith, and through him we showed the reality of true faith. He wants to step into a place of true faith by thinking about what he

did when God first called him. First, he was chosen by God. (1) He was born in Terah, where Shem, Eber, and Peleg lived, and grew up in the family of an idol dealer in Ur of the Chaldees. It is amazing that that person is chosen and called by God, and shows unconditional salvation through God's grace. It is impossible to fully explain why he was chosen as the ancestor of faith, but what is clear is that he was chosen and prepared first to save his people according to God's plan. In 15:6, Abr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Jesus also always emphasized this (John 10:27) and in John 6:44 he said that no one can come to the Lord unless the Lord draws him. He did it. The apostles also believed that. (Ephesians 1:5 Long 8:28-30) Knowing this deepens your faith. Have farsightedness. I am deeply moved and grateful. And be humble. That's because I know grace. Like the woman who was a sinner who broke the alabaster jar, she becomes a true devotee. May your election be confirmed. (2 Peter 1:9-10) Second, he lived as a source of blessing. (2-3) God was one-sided when calling him. A revelation came suddenly in Ur of the Chaldeans. Like Paul, like Moses, 1 He came unconditionally and without warning. And he gave a command and a promise. ...If you do this, you will do it like this. If you leave your parents and go wherever I lead you, I will give you three blessings. Among the great names, great people, and sources of blessings, the third blessing is the great blessing. Did Abraham receive everything in his life? It wasn't. He enjoyed his share until Christ came. But what is clear is that he lived as a source of blessing. The source of blessing here is Christ, salvation, and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Galatians 3:14) We must live a happier life than Abraham. Third, you can go by obedience. (4) This promise actually showed the succession of the covenant of grace to be made with God, but how did he respond? He, like

Enos and Enoch and like Abel, responded with absolute obedience. It's about setting up altars wherever you go. This means worship. It focuses entirely on worship of spirit and truth. It was obedience that enabled us to enjoy what God had promised. This is faith. At that time, you will live as a source of blessing and experience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 It is said not to say that a stranger or a eunuch who has joined God will be fruitless. (Isaiah 56:3-5)

Today, we need a life that is the source of blessings like Avraham. In fact, the belief that I am blessed everywhere I go is becoming a reality. That happens when you know the gospel.

셈의 하나님 (창9:1-29)

노아 홍수 심판 후, 생긴 새 질서는 부활 생명을 가진 생활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를 통해 구원의 표징을 보이신 주님이 그 약속을 계속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 세 아들이 받은 축복과 저주를 통해 셈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함의 하나님. 함은 수치를 들어내는 참소자의 일을 함으로 종의 종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마치 창 3:14에 뱀이 받은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종이란 굴욕적인 성 김이지 자원적 겸손의 성김이 아닙니다. 역사상 함의 후예는 정말 그런 특색을 나타낸 것처럼 보입니다. 종족적으로도 함의 후예인 가나안, 애굽, 그리고 바벨론의 역사적 흐름(창10:)을 보면 우상을 많이 성기고 성경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벌을 받아 운명 문화적으로도 낙후된 삶을 사는 민족으로 나타나지만 여기는 개인 적이고 영적인 방향을 강조한 것입니다. 참소하는 사탄의 원리를 따르는 자는 이런 저주아래 거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함이 받은 벌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보다 사탄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속에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인 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갈 5:19-21)(15가지)이 작용할 때 함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란 함의 원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비 성하라보다 202 남는 주장함에게 노악들의 아나함 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것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복이 그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미 에덴에서 나올 때
 예배를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계속, 이 흐름을 끊지 않으시고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 약속을 하시며 그 흐름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
 썸족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심으로 죽음과 부활로 구원 역사를 다 완성하신
 후 자기 백성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배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이 계속 나타나다가,
 계시록에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상 교회가 예배하는
 그림을 봅니다. 4생물, 24장로, 천군천 사 만물이 중앙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 예배하는 세계를 환하게 보는 것입니다. 셋째, 야벳의
 하나님, 야벳 역시, 썸처럼 창대해지는 복을 약속 받아 물질문명의
 번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썸의 장막에 있을 때 창대할 것을
 보면 예배를 위하여 그 물질이 사용되도록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라파의 발달은 이 예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설 때
 정복하는 자로 우뚝 솟아났으나 무시 할 때 멸망당한 가나안 꼴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기이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God of Shem (Genesis 9:1-29)

The new order that emerged after Noah's flood judgment is a symbol of living with resurrection life. Because the Lord, who showed the sign of salvation through the rainbow, continues to carry out that promise. Through the blessings and curses that Noah's three sons received, I would like to think that the God of Shem is the God of resurrection. First, the God of Ham. Ham said that he would become a servant of servants by doing the work of an accuser who exposes shame. It was a curse from God. It is like the curse that the serpent received in Genesis 3:14. Here, the servant is a person of humiliation, not a person of voluntary humility. Throughout history, Ham's descendants appear to have indeed displayed such characteristics. Looking at the historical trends of Canaan, Egypt, and Babylon, the descendants of Ham, ethnically, they appear as a people who worshiped many idols and were punished as people who opposed the God of the Bible, leading a fateful and culturally backward life. Here the personal and spiritual aspects are emphasized. Those who follow Satan's principles of accusation demonstrate God's righteousness by remaining under this curse. The punishment Ham received was that he would resemble Satan rather than reflect the image of God. This principle is always lurking within us. The predispositions of the flesh: deeds, impurity, sensuality, idolatry, sorcery, enmity, strife, jealousy, anger, factionalism, divisions, heresy, envy, drunkenness, and debauchery (Galatians 5:19-21) (15 types) will come into play. It follows the principle of Ham. We must immediately repent and return to the gospel. The life of resurrection is a rejection of Ham's principle. The expression 'anahab of the old people', which is 202 years later than Nabi Seonghara, first appeared here. These words were spoken in consideration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church

that will appear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 blessing of worship is promised to them. God, who already taught us worship when we came out of Eden, did not stop this flow and promised a rainbow after the flood judgment and said that the flow would continue. Now, in order to achieve this through the Semites, he spoke of the importance of worship. It was given to you. He showed that God would complete the work of salvation through death and resurrection through the coming of the woman's descendant, and then turn his people into a worshipping community. So, in the Book of Acts, we continue to see receiving grace when worshipping, and in the Book of Revelation, we see a picture of the heavenly church worshipping in the completed kingdom of God. It is a bright view of the world where the 4 living creatures, 24 elders, heavenly hosts, and all things worship the One who sits on the throne in the center. Third, Japheth, the God of Japheth, was also promised the blessing of becoming prosperous like Shem, and his material civilization flourished. However, this means that God allowed the material to be used for worship when it was seen to be large in Shem's tent. The development of Europe is not unrelated to this worship. When their faith stands, they stand tall as conquerors, but when they ignore them, they become like Canaan, which was destroyed. I pray that you will live in wonderful grace by believing in the resurrected Lord.

야베스의 간구 (대상4:8-10)

고통이란 뜻을 가진 야베스는 구약 역사서 중 하나인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온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갈라진 남쪽 유다 왕조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조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를 간단히 서술합니다. 거기에서 포로 이후의 다윗왕조를 설명하면서 야베스를 유다지와 중 고스 가문의 한 사람으로 나타낼 때 성령은 좀 더 자세히 기록함으로 독자의 마음을 끌리게 합니다. 8-9절에 야베스의 프로필 그리고 10절에 그의 생애에 일어난 경험 하나를 말합니다. 첫째, 야베스 그는 누구인가요?(8-9) 카일(Keil)은 대상2:55절에 그의 이름을 딴 지명이 나온 것은 그가 존귀한 자임을 암시하여 고스의 아들들(아눔, 소베바, 아하)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의 어머니를 몸이 약한 것 보다 정당한 아내의 대우를 받지 못하여 심적 고생이 많은 것처럼 시합니다. 야곱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의 심경의 표현이 그들의 아들들 이름이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형제들 중 귀중한 자"라고 말한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훗날에 그가 한 일로 인하여 귀중한 자로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귀중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삶 곧,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잠3:8-9) 둘째, 그가 받은 존귀한 복은 무엇인가요? 야베스의 간구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1) 지경의 확장되는 복- 자기 활동 반경을 확장시켜 달라는 간구입니다. 요셉처럼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같은 번창을 구했습니다. 번성과 번창은 아브라함의 복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만을 구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환난에서 벗어나는 복 - 지금 그는

환난과 곤고한 날을 당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속에 포함되는 고통입니다. 3) 영혼의 평안의 복-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잘됨을 구한 것입니다. 영혼의 잘됨은 성령 충만 외에 다른 길이 없 습니다. (엡5:18)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구할 이유는 1) 문화사역에 부름 받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건강이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정신에 온전한 생각이 듭니다. 일반은총 을 통해 주를 위해 몸의 건강을 챙겨야합니다. 3) 영혼의 잘됨을 전심으로 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야베스가 존귀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 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허 락하셨습니다. 그가 문화의 사람, 경제의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는 기도의 세계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산 교제가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영생인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야곱의 벤엘의 기도를 본받은 것 입니다. 야베스의 간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Jabez's petition (1 Chronicles 4:8-10)

Jabez, meaning suffering, appears in 1 Chronicles, one of the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1 Chronicles briefly describes the period in Israel's history up to the fall of the southern dynasty of Judah and the northern dynasty of Israel, which were divided into Saul, David, Solomon, and Rehoboam. There, when explaining the Davidic dynasty after the captivity and showing Jabez as

a member of the Kosh family of the tribe of Judah, the Holy Spirit captures the readers' hearts by writing in more detail. Verses 8-9 describe Jabez's profile, and verse 10 describes an experience that occurred in his life. First, who is Jabez? (8-9) Keil says that the fact that his name appears in 1 Chronicles 2:55 implies that he was a noble person, and that he was one of the sons of Koz (Anum, Sobeba, Aha).) I think it's one of them. He treats his mother as if her mental suffering was more due to not being treated as a rightful wife than to her weak body. This is because the expression of the feelings of Jacob's wives, Leah and Rachel, seemed to be the names of their sons. When we say that he was “precious among our brothers,” we mean not from the beginning, but that he was later recognized as precious because of what he did. Being precious means living a life with the wisdom given by God, that is, a person who fears the Lord. (Proverbs 3:8-9) Second, what noble blessing did he receive? We discover three things in Jabez’s request. 1) The blessing of expanding one’s territory – This is a request to expand the radius of one’s activities. Like Joseph, I sought prosperity like a luxuriant branch that climbed over a wall. Prosperity and prosperity are part of Abraham's blessing. This is not the only thing we seek, but we need to seek this. 2) The blessing of being free from tribulation - He is now experiencing tribulation and difficult days. It is a pain that is included in health problems, financial problems, relationship problems, and children's problems. 3) The blessing of peace of the soul - “May you not have any worries” The core of all these problems is the problem of the soul. It is to seek the well-being of the soul. There is no other way for the soul to prosper other than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phesians 5:18) The reason why the church today seeks this is because 1) we who are called to cultural ministry need wisdom. 2) Because

health is necessary. I feel of sound mind and sound mind. We must take care of our physical health for the Lord through common grace. 3) Because we must wholeheartedly seek the well-being of our souls. The first two are based on this. Third, being a person of prayer is a blessing in itself. It is God's evaluation that Jabez was honored. Because he is a life that shows the beautiful image of God. The God of Israel granted what he asked for. What is more important than being a person of culture, economy, or health is that he is a person of prayer. He knew the world of prayer well. I knew very well that living fellowship with God was the greatest blessing and that this was eternal life. He imitated Jacob's prayer at Bethel. May Jabez's prayer be fulfilled.

형통의 길(수1:1-8)

여호수아서 1:8절에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형통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언약의 목표이고 쫓이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간히 그 것을 암시하셨는데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말 그는 그의 목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방에서 안식 이 찾아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수21:44) 이것이 바로 형통, 성공 그리고 번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목표는 형통과 성공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언약을 이루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신정 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신정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 복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형상, 인의 형상,신의 형상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정복하고 기브온을 통합하고 가나안 7족속을 파하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12지파대로 분배하였습니다. 형통의 길이라 하여 고난이 없지 않았습니 다. 도리어 수많은 난관 속에서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분배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안식을 누 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그림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나타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히 2장에 보 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이스라엘의 안식이 아니고 그들이 그리워하고 이 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하늘입니다. 그 안식은 장차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자리입니다. 둘째, 어떤 동기에서 시작하게 하시나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약속이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힘을 주시어 잘못 했을 때 회개토록 하여 용서해주시고 따르게 하십니다. 셋째, 어떻게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이를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격이란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남은 말씀이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그의 말씀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여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나 아이성의 점령을 살펴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순종하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불순종하니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형통의 길을 걸읍시다.

The path to prosperity (Joshua 1:1-8)

The reason Joshua 1:8 says that the restoration of God's image is the path to prosperity is because it is the goal, flower, and fruit of the covenant. God hinted at it occasionally, and here he showed Joshua the way. Indeed, he achieved his goal in God's way. This is because it is said that in the end, rest has come from all directions. (Joshua 21:44) This can be said to be prosperity,

success, and prosperity. First, God's goal is prosperity and success. What is this condition? It is to do God's will, fulfill the covenant, and conquer Canaan to establish God's theocracy. The new government will become a community where God's people are restored to the image of God. We must show the image of righteousness, the image of humanity, and the image of God. So God tells Joshua, who took over the baton from Moses, to walk that path. Indeed, Joshua crossed the Jordan River, toppled the walls of Jericho, conquered the city of Ai, unified Gibeon, destroyed the 7 tribes of Canaan, occupied Canaan, and divided it into 12 tribes. Even though it is a path to prosperity, it is not without hardships. On the contrary, it was achieved despite numerous difficulties. However, the distribution of the land is not the end. By enjoying rest in that land, they live as God's people. This was the country God wanted. We already know the true meaning of that event because the shadows are now in the place where they appeared as reality in Christ. In Hebrews chapter 2, the goal we hope for is not Israel's rest, but heaven, which they long for and await their future glory. That rest is left to us in the future, and is given to us to enjoy while we are on this earth. What is this? This is the place where we are transformed into the image of God. Second, what motivates you to start? This is Emmanuel's promise. The promise of God being with us allows us to do this. His unique love compels us. God's love gives us the strength to repent when we do something wrong, forgive us, and follow us. Third, how do you achieve it? God's goal, the restoration of God's image, was accomplished through God's method. The same thing happened to Joshua, and it was achieved through obedience to the Word. When accomplishing God's will by obeying His Word, we must think of two things. We are convinced that the Word of God is equal to God. His appearance is the appearance of the Word.

God achieves salvation through His own power, and He will do so through His Word. Next, it is about obeying those words. It is to combine faith with the Word and do it as it is. This is what Joshua must do. If you look at the capture of Jericho or the capture of Ai, it is exactly like this. When we obeyed, God worked; when we disobeyed, we failed. Let us walk the path of prosperity like Joshua.

한나의 노래 (삼상2:1-10)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타락한 엘리 사사 때에 한 경건한 여인을 준비하여 새 역사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였습니다. 일찍이 삼손 같은 사사의 타락으로 영적 권위가 땅에 무참히 떨어 졌을 때 한나의 경건을 통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신정 백성은 언제나 마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음은 지정의 곧 영혼의 좌소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모신 마음이고 하나님과 장벽이 없는 열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거듭남을 가리켜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곳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벧전3:21) 그의 마음이 즐 겨우니 그의 뿔이 높아졌으며 그의 입이 세상을 향하여 크게 열린 것을 보면 영혼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마리아 는 눅1:46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만대에 나를 복있는 여자라 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산상보훈에도 주님이 가르치신 복은 모두 마음의 상태이었고 로마서의 구원에도 마지막 쟁점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주재 권이 반복해서 강조되었습니다. 주재권이란 주권, 왕권을 가리킵니다. 주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 실제로 모든 사건마다 한나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기쁨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용사는 넘어지고 넘어진 자가 힘을 얻고(전쟁) 풍족한 자가 품을 팔고 주리던 자가 다시 주리지 않고(경제) 불임자는 일곱을 얻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지고(건강)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생사) 스올 에 내리시고 올리기도 하시고(영원계) 가난과

부귀(명예) 낮춤과 높임(지위) 그리고 거름더미와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8번의 사실을 열거하면서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큰 부분만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주인되심이
 인정 해야합니다. (고전10:31)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인생관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실을 어린 아이처럼 그대로 믿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나타냈습니다.(9-10) 한나의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하나님만을 주로 인정하는 구원만을 보였습니다.
 구원과 함께 무서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9-10) 이것이 그 나라의
 통치의 양면입니다. 복음 속에도 이 둘이 따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부흥에서도 아나니아의 죽음을 통한 심판의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나지 말고 항상 그 생수를 비축 할 수
 있는 가난한 영혼을 가져야합니다. 한나는 비천한 여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이 보화를 가지고 즐겼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에게 기울어질 때
 이 땅을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보인 교회의 본입니다.

Hannah's song (1 Samuel 2:1-10)

It was God's amazing wisdom to prepare a devout woman during the time of the fallen Judge Eli at the end of the period of the judges and to bring about new history. In the past, when spiritual authority was cruelly dropped to the ground due to the fall of judges like Samson, God prepared through Hannah's piety. We can see the characteristics of God's kingdom in his prayers. First, I praised it with my heart. The people of Shinjeong have always focused on their hearts. This is because the heart is the seat of the soul. This is because a reborn soul is a heart that serves God and an open heart that has no barriers to God. Peter defined rebirth as the place where the soul seeks God (1 Peter 3:21). When we see that his heart was glad, his horn was lifted up high, and his mouth was wide open to the world, we can see how important the grace of the soul is. It shows. Mary said in Luke 1:46, "My soul praises the Lord, my heart rejoices in God my Savior...all generations will call me a blessed woman." The blessings taught by the Lord in the Sermon on the Mount were all a state of the heart, and the final issue in salvation in Romans is the state of the heart. Second, God's sovereignty was acknowledged. God's sovereignty is repeatedly emphasized in the text. Sovereignty refers to sovereignty and royal power. What was expressed in the word Lord was actually in every case, Hannah joyfully acknowledged that only God was the Lord. The warrior stumbles, the fallen gain strength (war), the wealthy sell their jobs, the hungry never hunger again (economy), the barren gain seven, those with many children become weak (health), he kills and saves. (Life and death) Bringing us down to Sheol, taking us up (Eternal Realm), poverty and wealth (honor), humiliation and exaltation (status), and raising us from the dung heap and the dust - listing the eight facts and proving that God is the owner of all things. I

did. We must acknowledge that God is the master of our lives, not only in the big parts but also in the small parts. (1 Corinthians 10:31) The view of life of the early church in the Book of Acts was that they believed like children in the fact that Jesus had become Lord and Christ. Third, it revealed God's hand of judgment. (9-10) Hannah's prayer began from the heart and only showed salvation by acknowledging God as Lord. He warned of terrible judgment along with salvation (9-10) These are the two sides of the kingdom's rule. These two also follow in the gospel. In fact, the revival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also showed the event of judgment through the death of Ananias. Never leave the source of living water and always have a poor soul to stock up on that living water. Hannah was a humble woman, but her heart rejoiced with this treasure. When we lean towards the God of salvation, we gain the wisdom to know this land and live correctly. Hannah's song is an example of a church that showed faith in the kingdom of God.

그 왕을 따르라 (삿21:25)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여호수아 생전에 그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의 백성으로 성기는 신정 가운데 400년은 하나님의 이상을 이 땅에 처음으로 나타내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때를 혼란기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상 사사시대는 어떤 때 보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생활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같은 영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왕권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말씀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일하시는데 단지 보이지 않는다 하여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가지고 싶은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왕권, 주권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순종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증거입니다. 수 1:8대로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할 때 수시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일마다 성공하고 형통한 일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사사들 곧, 웃니엘, 에훗, 기드온, 입다, 드보라, 삼손의 활약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었으나 그들은 수시로 또다시 배반하는 일을 반복한 것입니다. 구원 생활의 지속성이 항상 관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는 자는 생명과 승리이지만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절할 때 그 때부터 영적 사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왕권을 인정할 때 생명, 능력, 빛이지만 거절할 때 죽음, 무력, 어둠이

일어납니다. 인정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거절할 때 사탄의
 세력이 일합니다. 모든 일에 그의 왕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실제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합니다. 가나안 1세들의 400년간의 생활의
 특징을 그 다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고 한 것은 왕권을
 거절할 때 자연히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에게 조종 당하는 자기가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모든 것의 표준이 자아라는 뜻입니다. 이 자아란 성령을
 따르지 않은 혼적 기능을 말합니다. 그 혼적 기능이란 생각, 감정,
 의지로 요약됩니다. 성령을 제쳐 놓은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는 완전히
 자아의 노예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아의 노예란 바로 마귀의
 노예이며, 세상의 노예이며, 육체욕심의 노예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기를 거절합니다. 이것이 반역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당하는 실패의 원인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때에 주님의 왕권이 세워집니다. 셋째, 왕이 보내신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사사시대 같은 혼란의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합니다.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해야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Follow the king (Judges 21:25)

After Israel entered the land of Canaan, during Joshua's lifetime, the 400 years
 of the New Year in which they became the people of obedience to God, their
 king, were the first time that God's ideals were revealed to this land. People

only think of that time as a period of confusion, but in fact, the period of the judges can be said to be a time that best represents the practical life of Christians more than any other time. This is because in a chaotic world, we must live a life of obedience to the King of God's kingdom. What is the way to escape spiritual conflict like the period of the Judges? First, we must truly recognize the kingship of Christ. The words, "At that time there was no king in Israel,"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iod of the judges. Just because Jehovah God works as a king and is invisible, they were tempted to have a visible king like other countries. So, they failed to follow actual royal authority and sovereignty. This is evidence that the Israelites who settled in Canaan had their pure hearts of obedience to God corrupted. If you meditate on His words day and night and keep them and practice them according to Joshua 1:8, you will not be able to experience victory wherever you go and success and prosperity in everything you do. So, salvation was achieved through the actions of the six judges, Othniel, Ehud, Gideon, Jephthah, Deborah, and Samson, but they continued to betray again and again. Continuity of salvation life is always the key. Those who believe in Christ's kingship have life and victory, but when they reject Christ's kingship, spiritual death begins from then. This is like light and darkness. When we acknowledge the royal authority, life, power, and light arise, but when we reject it, death, powerlessness, and darkness arise. When we acknowledge i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ppears, but when we reject it, the forces of Satan come into play. Only Christians who thoroughly acknowledge His Kingship in all things can enjoy real victory. Second, he must surrender his self-thinking to Christ. The characteristic of the life of the first generation of Canaan for 400 years is that "they then did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This means

that when you reject the kingship, you will naturally live a life where you are the king. If it is not Christ, you will be controlled by the devil. This means that the self is always the standard for everything. This ego is a soul function that does not follow the Holy Spirit. It is summarized as thoughts, emotions, and will. Thought, emotion, and will refer to living completely as slaves of the self. Being a slave to the devil, being a slave to the world, and being a slave to the desires of the flesh means surrendering one's thoughts to Christ. I refuse. This is rebellion. Our goal is to live as people who submit their thoughts to Christ. We must pursue the Holy Spirit and experience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in times of confusion, such as during the time of the Judges. We must seek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with all our hearts.

기업을 무를 자 (룻4:7-12)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관계에서 펼쳐진 배 경을
깁니다. 모압은 사해 주변의 넓은 평원 위에 산지에 거주 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현장이기도 합니다. 유다지파인 나오미가 그의 남편을 따라 베들레헴의
년 때문에(1:1) 이곳으로 이주한 것은 이스라엘에 가 웅이 들 때 모압은
곡식이 풍부했습니다. 이주한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의 병
때문에 사별하고 두 자부를 가진 시어머니요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
며느리 중 룻이란 여인은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으로(1:16-17)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그리스도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특이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기업 무를 자에 주 목하게 했습니다. 기업 무를
자를 중시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하였습니까? 첫째, 섭리는 기적보다 더 강하고 넓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 정에 병이 낫는 기적이나 부자가 되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지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죽은
것입 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사시대의 사사의 신정통치가 전혀
미치지 않은 불행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위대한
구속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모압의 나그네 가정을 통해 더 크신 기 적을
준비하심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 기업 무를 자에 모 **Моисей** 압의
한 가련한 여인이 들어가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50년 후 에 다윗,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룻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은 기적인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면서 하 나님의 주권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은 첫째 자부, 오르바 의 섭리적 포기, 보아스

보다 가까운 친족이 책임지기 싫어함, 증인이나 보아스 자신도 이방여인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끼어 맞추듯이 기업 무를 자의 안 주인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섭리의 모태에서 잉태됩니다. 둘째,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업이란 구원과 거기에 포함된 풍성한 열매들입니다. 마치 가나안의 젖과 꿀 그리고 수고하여 얻는 그 땅의 결실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와 평화입니다. 그때 하늘이 응하여 시시때때로 하늘의 비와 이슬로 촉촉이 젖어 성장 발육하여 번창하는 요셉의 복이 상의 것이고 장래에 영원히 준비된 천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이 영원한 풍성한 기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업에 넉넉히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었고 그 기업을 서로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왕통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왕통에 들어가기까지 뚫은 현숙한 여인으로 자아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호와만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효행을 중시하여 경건과 신실과 근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행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 앞에 주어진 환경에서 겸손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will redeem the inheritance (Ruth 4:7-12)

The Book of Ruth has the background of Israel's relationship with Moab during the period of the judges. Moab lives in a mountainous area on a wide plain around the Dead Sea and is also the site where Moses taught God's law to the Israelites before entering Canaan. Naomi, a member of the tribe of Judah, moved here with her husband because of the years of Bethlehem (1:1), when Moab was rich in grain when the Israelites entered Israel. Naomi, who immigrated, lost her husband and two sons due to illness, and lived as a widow and mother-in-law with two daughters-in-law. One of the daughters-in-law, a woman named Ruth, shows the unusual event of returning to Bethlehem and entering the ranks of Christ's ancestors under the influence of her mother's faith (1:16-17). In the main text, attention is paid to the person who will redeem the company. What was God's hand in fulfilling the Abrahamic covenant centered on those who would receive the inheritance? First, providence is stronger and broader than miracles. There was no miracle of sickness being cured or becoming rich in Naomi and Lot's family. They got sick and died in a foreign country. I lived as a stranger and died as a stranger. How sad is that? It seemed like an unfortunate family that was completely untouched by the theocratic rule of the judges during the period of the Judges. However, no one knew that God, who prepared the great redemption in Egypt, was preparing an even greater miracle through the traveler families in Moab. It is an amazing miracle that a poor woman from a certain company enters the company. The fact that David, who will come 50 years later, and Jesus Christ, who will come 1,000 years later, comes from Lot is a miracle. Matthew clearly records this fact, showing us the sovereign hand of God. Ruth, despite the providential abandonment of her first-born daughter-in-law, Orpah, the

unwillingness of a closer relative than Boaz to take responsibility, and the fact that her witnesses or Boaz himself could have rejected the foreign woman, she fit in and became the mistress of the inheritance-redeemer. . Miracles are conceived in the womb of providence. Second, she must live a life focused on enterprise. The inheritance is salvation and the rich fruits it contains. It is like the milk and honey of Canaan, the fruits of the land obtained through hard work, and the grace and peace enjoyed under God's rule. At that time, heaven responds, and from time to time, we are moistened with heaven's rain and dew, grow, develop, and prosper. This is a blessing beyond that of Joseph, and we enter heaven prepared for eternity in the future. Therefore, the apostle prayed that the saved would know this eternal and abundant inheritance, and that they would be able to become full participants in that inheritance, hold on to the word of God, and share that inheritance with one another. Third, he entered directly into the royal lineage of Christ. Until she entered the throne of Christ, Lot was a virtuous woman, denying her self, taking up her cross, and becoming a follower of her Lord alone. She appeared with piety, faithfulness, and diligence, focusing on filial piety. Christian ethics and actions are tools used by God. I hope that you will become believers who look to the hand of providence and humbly live a life of faith in the environment given to you by the Lord.

요셉의 복의 실상 (창 49:22-26)

일찍이 창조물과 아담은 먼저 복을 받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운이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비는 축도에서 우리는 복에 관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의 축도 속에 요셉에게 나타 난 복은 어떤 것입니까? 1-27절에 12지파들의 축원을 말합니다. 훗날 모세의 축원의 기초가 된 요셉의 복을 관찰함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것은 전능자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24-25절에 전능자로부터 나온 복을 구했습니다. 요셉의 복에서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엘 샤다이 호칭이 야곱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전능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원, 그의 방법, 그의 중심, 그의 능력으로 되기에 오직 그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울의 신학이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그 분에게 매어달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도 그의 보호는 특이하였습니다. 마하나임의 은혜처럼 두 겹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는 전신갑주의 절대 보호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상을 책임지는 복입니다. (복의 성격) 22-23절에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말합니다. 원문에는 들 나귀(wild ass)로 나왔습니다. 샘 곁에 있고 담을 넘은 나귀로 비유합니다. 어떤 이는 자유와 독립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어쨌든 자기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 그리고 전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미칠 복 임을 그림으로 그려준 것입니다. 실제로 두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 자신, 여호수아, 사무엘, 북 왕국
 에브라 임과 므낫세 요셉의 복은 복음의 그림자이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의 발전적인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요셉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28절에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 아버지의 복 그리고 선조의 복보다 더 나은
 복이라 했습니다. 셋째, 영원한 산에 거하는 복입니다. 26절에 영원한
 산의 복이 라고 했습니다. 산의 복이란(합3:6) 하늘의 복을 가리키나
 영육간의 모든 복의 총집합체인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28 장에 그 복이 자세히 약속되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영혼의 복 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외형적인 복은 저주라고 말합니 다.
 (시73:)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 복관은 무엇인가요? 예수 안에서 경건의
 삶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신약에 나타날 성령 안의 복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세상을 하나님나라로 바꾸는 복의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The reality of Joseph's blessing (Genesis 49:22-26)

In the beginning, creation and Adam first began by receiving blessings. After that, Abraham was blessed. His gown was blessed. In Jacob's benediction to Joseph at the end of Genesis, we see the truth about blessing. What blessing was revealed to Joseph in the benediction in Genesis chapter 49? Verses 1-27 speak of the blessings of the 12 tribes. I hope to receive grace by observing Joseph's blessing, which later became the basis for Moses' blessing. First, this is a blessing from the Almighty. In verses 24-25, we asked for a blessing from the Almighty. This term is used only in the Beatitudes of Joseph. The title El Shaddai that appeared to Abraham also appeared to Jacob. This Almighty is the Christ who will come in the future. Because everything comes from Him. Paul's theology was that only he would receive the glory because of his wish, his method, his center, and his power. It is our faith that all things come from Him, through Him, and return to Him. The only faith in Jesus is believing in what Christ does and clinging to Him. Even in the time of Elisha in the Old Testament, his protection was unique. Like the grace of Mahanaim, it is filled with two layers. However, in Christ in the New Testament, it is said to be absolute protection of the full armor. Otherwise, our salvation cannot be achieved. Please cry out in faith. Second, it is the blessing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world. (Characteristics of blessing) Verses 22-23 speak of the blessing of luxuriant branches. In the original text, it was referred to as a wild ass. It is likened to a donkey that is by a spring and has climbed over a wall. Some interpreted it to refer to freedom and independence. In any case, he was painting a picture of the blessings that would come not only to him and his family, but also to his brothers, to all Israel, and to the whole world. In fact, both tribes played a great role in Israel. The blessings of Joseph himself,

Joshua, Samuel, the northern kingdoms of Ephraim and Joseph of Manasseh are shadows of the gospel. This is the development of what is the source of Abraham's blessing. Those who live for the gospel are those who enjoy the blessings of Joseph. Verse 28 says that it is a blessing that is better than the blessings of heaven above, the blessings of deep springs below, the blessings of infants, the blessings of the womb, the blessings of a father, and the blessings of ancestors. Third, it is the blessing of living in an eternal mountain. Verse 26 says it is the eternal blessing of the mountain. The blessing of the mountain (Habakkuk 3:6) refers to the heavenly blessing, but it also refers to the spiritual blessing, which is the sum of all spiritual and physical blessings. In fact, that blessing is promised in detail in Deuteronomy 28. You will be blessed both when you enter and when you leave, and even the rice cake kneading bowl is blessed. However, because the blessing is related to the blessing of the soul, external blessing without this is said to be a curse. (Psalm 73:) So what is the most ideal way to dress? It is to enjoy the blessings of a godly life in Jesus. Joseph's blessing is the grace of the gospel achieved in Christ. Jacob is the blessing in the Holy Spirit that will appear in the New Testament. We have tasted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and have seen blessed people who change the world into the kingdom of God.

사라의 확신(창18:1-15)

사라의 의심과 불신앙의 웃음이 주님의 책망으로 확신으로 변하였습니다. 11:11-12에 그가 믿음으로 단산된 자신의 불가능을 알 았지만 힘을 얻어 이삭을 낳았다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 그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21:3) 여호와를 맞이하기 위해서 참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연단하 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 이것은 영적 긴장에서 나왔습니다. (11-12)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방문을 받을 때가 한창 긴장이 고조되는 때였다. 하갈과 사랑의 다툼,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확인하실 때 이삭이라는 이름 도 지어주고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때, 심리적으로 긴 장이 생긴 때였습니다. 그 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을 초청했 는데 여호와와 두 천사였습니다. (1-2) 그들을 대접하는 중에 아브 라함은 내년 이맘 때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그 때 내가 온다(10 이삭을 통해_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기도응답은 주님이 친히 간섭하신 일이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의심하는 그의 내면 의 웃음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사라의 의심이 변하여 믿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영적 긴장은 진정한 은혜로 나가는 통로 입니다. 순종의 신앙은 영적긴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순수한 믿음을 만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을 때 여러 상황을 만납니다. 이별의 슬픔도 생기고 외부의 공격도 받는다. 안 믿는 자의 처지 보다 못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 긴장 상 태에서 주님과 그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서야합니다. 둘째, 섬김의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5-8) 둘째로 이 변화된 신 앙은 겸손의 토양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김은 교회의 큰 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강침함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것을 가리켜 부지 중 나 그네를 대접한 것이 천사며 여호와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요? 모든 기도가 그 시간에 응답된 것입니다. 대접하면서도 아브라함은 그들과의 대화로 말씀 듣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내년 이맘 때에 이삭이 나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란 말도 되고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도 되고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친히 주께서 일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는 남을 겸손히 성기고 대접하는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부으심으로 완성됩니다.(14)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 적이 의를 따라 사는 가정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첫 아당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assurance)이라고 합니다. 소속은 분명히 하나님 것인데 실체는 세상 것, 마귀 것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집중하고 그의 말 씀에 달라붙어 갈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은 구원 성장의 절 정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Sarah's confidence (Genesis 18:1-15)

Sarah's doubts and laughter of disbelief were transformed into confidence by the Lord's rebuke. This is because in 11:11-12, he testifies that although he

knew his impossibility through faith, he found strength and gave birth to Isaac. After giving birth, she rejoiced and praised God like Mary. (21:3) Jehovah trained her because she needed true faith to welcome Him. How can you have this confidence? First, it came from spiritual tension. (11-12) It was a time of heightened tension when Abraham received a visit from three people. It was a time of psychological tension, such as the love struggle with Hagar and the time when God reconfirmed the covenant, gave him the name Isaac and obeyed the command to circumcise him. At that time, Abraham invited a passing guest: Jehovah and two angels. (1-2) While treating them, Abraham said that around this time next year, Isaac will be born, and then I will come (10 This means that I will come through Isaac. Isaac is a type of Christ. The answer to prayer is the result of the Lord's personal intervention. Ida) received a message. When Sarah heard this, she laughed behind the curtain. He pointed out and rebuked his inner laughter of doubt. Then Sarah's doubts were transformed into her faith. Compassionate tension is the path to true grace. Obedient faith requires spiritual tension. This is because it is a time to create pure faith. We encounter many situations as we walk down the narrow path. There is sadness of separation and external attacks occur. It is sometimes worse than the situation of a non-believer. At this time, we must stand with faith holding on to the Lord and His Word in a state of spiritual tension. Second, it grows from a heart of service. (5-8)) Second, this transformed faith bears fruit in the soil of humility. Abraham's holiness is a great example for the church. They are very proactive in encouraging people passing by. He was very humble. Hebrews 13 refers to this by saying that it was an angel and Jehovah who entertained the traveler while on the premises. How bizarre is this? All prayers were answered at that time. While serving them, Abraham

focused on listening to them through conversation. This means that around this time next year, grain will grow and I will return. It can mean that prayer is answered, it can mean that Isaac is a type of Christ, and it can also mean that the Lord Himself is working to accomplish the work of salvation. We should like to treat others humbly and generously. Third, it is completed by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14) The purpose of choosing Abraham was to create a family that lives according to righteousness. So, unlike the first Adam, Abraham and Sarah must have a firm faith in God. We call this assurance. How unfortunate is it if we clearly belong to God, but in reality we live in things of the world and the devil? So an act of faith was necessary. During this process, Abraham focused only on Jehovah and clung to His words. Therefore, this assurance is the pinnacle of salvation growth. This is our goal.

언약 백성의 효도 (창17: 1-8)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식을 낳는 문제와 관련되어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 75세에 부르시고 15장에 89세에 확인하시고 17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 가문이 잘 먹고 잘 사는 목표가 아니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과 생활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의 근원, 다음에 언약백성의 터전인 땅과 언약의 성격을 일련의 의식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정체성이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7-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서있는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 든든히 세우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새 이름을 주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새 이름, 새 로운 피조물이 된 관계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인 "관계(relationship)"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자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빙 돌아서 왔지만 우리는 정곡을 찌르는 관계 곧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예수 믿는 순간에 직접 맛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영생을 나누는 인격적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요1:12)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만 신경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세례, 예배, 성찬, 봉사, 구제, 헌금, 전도 이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그 피조물로 살려면 여전히 그분과의 바른 관계에 충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의 생명있는 효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을 좇아야합니다. 본문에 성령이란 말이 없지만 성령을 좇으라는 언약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1) 언약 목적은 군신관계, 부자관계로서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의 형상회복입니다. 2) 언약 결과는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가나 안은 그리스도이며 천당이며 성령 충만 상태입니다. 3) 언약 표징 은 할례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세례로 완성됩니다. 성령세례를 안 받으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고 이 언약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증거입니다. 어버 이날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언약의 핵심인 교제와 성령을 구하 는 데 초점을 맞추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어야할 것입 니다.

Filial piety of the covenant people (Genesis 17: 1-8)

The text is about what happened when Abraham was 99 years old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giving birth to a child. The calling he made at the age of 75 in Genesis chapter 12, the confirmation at the age of 89 in chapter 15, and the more specific promise in chapter 17 were not simply the goal of Abraham's family to eat and live well, but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salvation and livelihood of his people. . So, God, who first showed us the nature of the covenant and the land as the source of blessings and then as the foundation of the covenant people, has made the identity of the covenant people more

certain today. Identity refers to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people. Looking at verses 7-8, God becomes Abraham's God and he becomes God's people. What is the filial piety of a Christian standing on this? first. We must strive to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How did God establish this relationship? In verse 5 we see that he gave us a new name. Christians are people who have entered into a new covenant and have become a new creation with a new name. This happens instantaneously. If you believe with your heart and confess with your mouth, it will happen. We must focus on "relationship," which is the core of the covenant. We are already a father-son relationship through Christ. Abraham and Israel went around in circles, but we directly experienced a relationship that hits the nail on the head, a relationship that shares life, the moment we believed in Jesus. In other words, by accepting Jesus, we enter into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that shares eternal life. (John 1:12) That is why He made us focus only on fellowship with Christ. This is the core of the new covenant. Baptism, worship, Holy Communion, service, charity, money, and evangelism all happened because of this. Now that you have become a new creature in Christ, I emphasize that if you want to live as that creature, you must still make every effort to maintain a proper relationship with Him. I hope that life-giving filial piety will arise in the Lord. Second, we must follow the Holy Spirit. Although there is no word about the Holy Spirit in the text, we can see the core of the covenant to follow the Holy Spirit. 1) The purpose of the covenant is a relationship of sharing life as a military-lord relationship and a father-son relationship. This is ultimately the restoration of God's image. 2) The result of the covenant is ownership of the land. Canaan is Christ, heaven, and a stat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3) The sign of the covenant is circumcision. This is completed through New

Testament baptism. If you do not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you will become a person who has nothing to do with Christ and has nothing to do with this covenant. Abraham's laughter is evidence of being guided by the Holy Spirit. On Father's Day, we must return to the Bible and focus on seeking fellowship and the Holy Spirit, which are the core of the covenant, to obtain the blessings of prosperity and longevity on earth.

이삭의 묵상 (창24:61-67)

우리는 이삭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을 하나 발견 합니다. 이삭은 칭의와 은유의 자화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삭의 생애에 이 은유가 특징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상했다. (푸라우스, 4235)(63)"는 말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거닐었든지, 휴식했든지 뜻보다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한 조용한 성품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결박당한 때나 아비 뱀렉에게 우물을 빼앗길 때, 리브가가 출산할 때 그리고 앞이 잘 안보이나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영권을 가진 은유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삭의 묵상하는 은유한 기도의 사람의 자화상을 그리며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첫째, 언약 순종자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을 닮아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생활을 벗어나지 않고 조용히 겸손히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이 언약에 순종하는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 소중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한 이름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됨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언약의 순종자의 꿈을 그리면서 집중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버지가 받은 언약을 감당할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잘 감당하려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언제 되는 기약도 없지만 그 언약을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는 장차 오는 구속자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지만 구전을 통해 전수받은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꿈을 품으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둘째, 기도의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꿈과 이상만 가진 이상주의 자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현 실주의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방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것을 알려고 겸손히 골방을 찾는 것입니다.
 브엘라헤로이(샘물) 근방에 살다가 들판에 나와 목상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기도의 골방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골방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들판에서 배회(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한 것입니다.(마6:6)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 인생이고
 기도사역입니다. 먼저 교회는 남 녀가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가정생활에 성실해야 합니다. 모리아 사건이후, 아브라함은 나이 많고
 늙었으나 모든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24:1) 그에게도 자연법칙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여 사라가 죽었고 이삭 역시 사라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한 사람은 자기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귀한 것입니다. 약하고 고통있고 답답하고 못한
 것처럼 보이나 거기서 목상을 배울 때 그는 지경이 확장되고 고통과
 근심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Isaac's Meditation (Genesis 24:61-67)

We discover an important picture from Isaac's life. This is because Isaac shows a self-portrait of justification and meekness. This is because this meekness wa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Sak's life. He was broken. (Puraus, 4235)(63) means praying. Rather than walking around or resting, it expresses the quiet nature of thinking and praying before God before marriage. This is true when he was bound or when he was tied up by Abi Melech. When we see Rebekah giving birth and praying for blessings even though she cannot see clearly, Christians must move forward by drawing a self-portrait of Isaac as a person of meditative and gentle prayer. What should we do to become a meek person? First, Isaac, like Abraham, lived quietly and humbly without straying from his father's covenant. Because he had a dream of obeying this covenant from a young age, he must have learned the importance of forming a great nation, having a great name, becoming a source of blessing, and being saved from sin. It is clear that he was concentrating on the dream of being an obedient person of the covenant and dreaming of becoming a person who would fulfill the covenant given to him by his father. Second, although he did not receive the revelation of the coming redeemer, he went to the closet of prayer with the dream of saving all nations through the source of blessings handed down through oral tradition. Our goal is not to be an idealist with only dreams and ideals, but to live as a realist who makes those ideals a reality. That is why he humbly sought to know this through fellowship with God. The fact that he lived near Beer Lahai Roi (spring) and meditated meant that he was looking for a place to pray for fellowship with God. Although he appears to be wandering, he was praying to the living God. (Matthew 6:6) -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is the time of prayer, the life of prayer, and the

ministry of prayer. First, the church must have men and women praying. Third, she must be faithful in her family life. After the Moriah incident, Abraham was blessed in everything, even though he was old. (24:1) He also could not escape the flow of natural law, so Sarah died, and Isaac also grieved over Sarah's death. At that time, I met and married Rebekah, whom God had prepared, and received comfort. The man who conquers the earth is the man who builds his family on his word. The history of occupying the land takes place there. Jabez's prayer is precious in that sense. He appears weak, in pain, frustrated, and ugly, but when he learns meditation there, his horizons expand and he becomes saved from pain and anxiety.

나의 영원한 기업 (창25:27-34)

성경이 에서와 야곱 생애를 보여 준 이유는 교회에게 구속에 관한 기업을 가르치려는데 있습니다. 구속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들의 삶뿐 아니라 후손의 장래까지도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노선을 벗어나 야곱의 노선을 따라 가는 그리스도인은 기업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 구속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합니다. 모세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여 기록합니다. 같은 부모님 아래서 | 귀하게 태어나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외형적인 가운, 은사 그리고 장래의 기업은 같았으나 기업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에서는 기업을 경히 여겼지만, 야곱은 그 기업을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가인과 아벨, 셈과 함의 계열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속에서 보여진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에 대한 태도, 믿음에 대한 태도, 구속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태도로 표현되었습니다. 31-32절에 장자의 명분을 놓고 팔고 사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적은 사건처럼 보이나 그들의 현재와 장래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이 태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난 주제였습니다. 우상이냐 하나님이나, 자기냐 하나님이나가 마침내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타났습니다. 영이나 육이나로 귀 착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신앙생활에 두려워할 4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 망령된 에서의 태도를 경계하셨습니다. 둘째, 기업에 대한 명령된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잠시의 배고픔의 고통을 참지 못하여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 순간에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의 행동을 가리켜 "한 그릇 식물을

위하 여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12:16-17) 망령이란
 영적 치명적 질병입니다. 한 마디로 육신위주의 생활을 가리킵니다.
 사울과 엘리처럼 망령되어 행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의 두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 망령된 생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 어린 아이 곧, 육신을
 쫓는 사람은 이 기업을 누리지 못합니다. 셋째, 영원한 구원의 기업을
 즐겨야 합니다. 에서는 기업을 무시했으나 야곱은 기업을 사모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그것이 야곱 생애의 특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벤엘과 밧단아람과
 브니엘에서 그의 경험에 더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61장의
 꿈처럼 찬송의 옷, 구속의 옷, 공의의 옷을 입고 재를 대신한 화관,
 슬픔을 대신한 기쁨의 성령 기름, 근심을 대신한 찬송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풍성한 기업은 현재에도 즐기며
 장차 나타날 세계에서도 온전히 누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안의 기업을 갈망하며 나를
 중심하여 새 역사를 이를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적 교제를 누리는 복을 즐겨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을 알고
 갖고 주장 합시다.

My Eternal Inheritance (Genesis 25:27-34)

The reason the Bible shows the lives of Esau and Jacob is to teach the church
 about the inheritance of redemption. How do you deal with restraint? This is
 because it influenced not only their lives but also the future of their
 descendants. How can a Christian who leaves Esau's line and follows Jacob's
 line enjoy the inheritance? First, we must live a life centered on redemption.

Moses records a comparison between Jacob and Esau. under the same parents | He was born noble and grew up receiving his father's prayers. The outward appearance, gifts, and future company were the same, but their attitudes toward the company were different. Esau despised the inheritance, but Jacob longed for it. This is the same as what was seen earlier in the line of Cain and Abel, Shem and Ham, and Ishmael and Isaac. In short, it is expressed in attitude toward business, attitude toward faith, attitude toward redemption, and attitude toward the Word. The sale and purchase transaction over the birthright in verses 31-32 may seem like a small event, but it was a touchstone that determined their present and future. This attitude has been a recurring theme throughout Israel's history. Idol or God, self or God, finally appeared in the New Testament as whether one believes in Jesus or not. It came down to whether it was spirit or flesh. So, in the book of Hebrews, he spoke of four things to fear in the life of faith, and among them, he cautioned against the profane attitude of Esau. Second, we need to let go of the dictated thinking about businesses. Unable to bear the brief pain of hunger, Esau neglected his birthright. This is not something that happens at that moment; it happens out of habit. The Hebrew writer says of his actions, "He despised his birthright for the sake of a bowl of food." (12:16-17) A ghost is a spiritual, fatal disease. In a word, it refers to a life centered on the flesh. We must be wary of acting recklessly like Saul and Eli. His two sons also took after their father and died with foolish thoughts. Spiritual babes, that is, people who follow the flesh, cannot enjoy this inheritance. Third, we must enjoy the inheritance of eternal salvation. Esau ignored the company, but Jacob loved it. This heart was given by God. It is a heart that hungers and thirsts for righteousness. That marked the hallmark of Jacob's life. This was shown more clearly in his experiences at

Bethel, Paddan-aram, and Peniel. Just like the dream in Isaiah chapter 61, we must wear the clothes of praise, the clothes of salvation, and the clothes of righteousness, and enjoy the crown of flowers instead of ashes, the oil of the Holy Spirit of joy instead of sorrow, and the grace of praise instead of sorrow. The rich inheritance given in Christ is a wonderful gift in Christ that we can enjoy now and fully enjoy in the world to come. We who have received this must long for our inheritance in Christ and dream of creating a new history centered on ourselves. We must enjoy the blessing of enjoying spiritual fellowship that ascends and descends upon the Son of Man. Let us know, cultivate, and claim My eternal inheritance.

아브라함의 영권 (창20:1-18)

교회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생애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 지혜를 얻으며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본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또 보여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세가지 직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직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와 공도를 지킴으로 보였고, 선지자 직은 메시 지를 이웃에게 전함으로 곧, 그의 아들 이삭을 출생시킴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기도함으로 제사장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다른말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권 입니다. 그의 영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그의 영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타났습니다.(20)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함을 봅니다. 바보처럼 무방비 상태로 당합니다. 바로에게도. 그러했는데 여기서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약정처럼 보이나 강정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뜻이 위탁, 신뢰, 항복입니다. 영권은 믿음을 화합할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직접 보호를 받았습니다.(3) 자기의 약함으로 아 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꿈에 나타나 경고하시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 나라 의 여인들의 태를 모두 단으셨습니다. 조치를 취하신 상태입니다. 예: 요10: 성부와 성자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이 험한 세 상에서 하나님의 직접 보호를 약속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이것이 영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서 그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자굴과 풀무 속에서 밤새도록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을 것입니다. 풍랑일 때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호수로 건너가 자고 하신 명령을 듣고 건담으로 기대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반드시 더 좋은 날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풍성한 손길을 보고 깊은 지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기적보다 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보호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치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17) 그는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함으로 치료했습니다. (창12:3) 소동 고모라의 치료, 욥의 기도로 세 친구가 치 룰 받은 것이 영권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영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라의 불치를 치료하듯이 원수도 치료했습니다. 개인의 인격, 소 동 고모라의_고질적인 죄, 언약을 성취하는 것, 가정, 생업, 자녀, 건강, 교회 등에 왕성한 치료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에 관심을 집 중하는 이 달,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1) 주께 행복하며 2) 주의 보호의 날개아래 숨으며 그리고 3) 치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발람처럼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자꾸 비는 성도가 됩시다.

Abraham's spiritual rights (Genesis 20:1-18)

The reason the church pays attention to the life of one man, Abraham, is because Christ came through him, gain wisdom by living a Christian life through him, and learn the example of fulfilling God's economy through him. Through the life of Abraham, God again demonstrated the restoration of God's image, and it was specifically comprised of three positions. The king's office was seen as his keeping righteousness and justice before God, and the prophet's office was for him to spread the message to his neighbors, that is, to become a nation that became a source of blessing by giving birth to his son Isaac. In the text, we see that God allows us to perform priestly ministry through prayer. In other words, this is Abraham's spiritual right. I pray that his spiritual realm will be yours. How is his spiritual authority shown in the text? first. It was revealed by leaving everything to God.(20) We see Abraham's weakness. I was caught defenseless like a fool. To Baro too. That was the case here as well. This may seem like an agreement, but it is a strong agreement. Because I entrusted everything to God. Faith means entrustment, trust, and surrender. Spiritual authority is given from above when we unite our faith. Please entrust everything to the Lord. Second, he received direct protection from God. (3) It was God who lifted up the face of Abraham, who had lost his wife because of his own weakness. He appeared in dreams to warn us and give us specific instructions. He closed the wombs of all the women of the country. You have taken action. Example: John 10: He is said to be upheld by the hands of the Father and the Son. We are the ones who have been promised direct protection from God in this dangerous world. This is the Yeonggwon. The powers of Hades cannot overcome. When Daniel was in the lion's den, his three friends were protected from the fire. What did they do all night long in the lion's den and in the furnace? You must have prayed before God. What

would you have done if you had faith during the storm? After hearing the command to go across to the lake, he must have endured and went out in anticipation. You must have looked forward to it with faith that better days would surely come. You would have seen God's richer hand and enjoyed deep knowledge. You would have come to know God more deeply than miracles. Please believe in this promise of protection and go forward. Before Zerubbabel there will be a plain. Third, Abraham's prayer resulted in healing. (17) He healed Abimelech by praying for him. (Genesis 12:3) The healing of the troubled Gomorrah and the punishment of the three friends through Job's prayers are spiritual rights. We can utilize the spiritual power of prayer. How much do you have to pray for? Just as he treated Sarah's incurable disease, he also treated his enemy. Vigorous healing must occur in the individual's personality, Gomorrah's chronic sin, fulfillment of the covenant, family, livelihood, children, health, church, etc. This month, as we focus our attention on the family, we must restore Abraham's spiritual rights. To do so, let us 1) surrender to the Lord, 2) hide under His wings of protection, and 3) pray for healing. Let us not be like Balaam, but like Abraham, let us become saints who continually pray for blessings.

아브라함의 시험(창22:1-19)

본문의 아브라함도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모리아에서 당한 시 형에도 이 요소는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 제정신으로 자유롭게 절대 선택할 수 있기에 안한다고 해도 어떤 죄책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넘어져 죄를 범하여 언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 언약의 복을 향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시험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째, 시험의 목적, 25년 동안
 애태우던 아들 갖는 문제로 무수한 시험을 당한 그는 이제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시험 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now I now that you fear God)"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12) 여호와
 경외는 신약의 그리 스도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행20:20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과 같습니다. 겔은 두려움인데
 속은 뜨거운 사랑이 있는 마음이 여호와 경외입니다. 장1:7에 이것을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 시2:에 아들에게 두려움으로 입
 맞추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둘이 조화되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은 성령만이
 만드십니다. 또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겸손히 사랑하는 마음이 경외심입니다. 자아부인, 겸손 그리고
 헌신이 따른 마음입니다. 둘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 사라의 일로
 거짓말을 한 것을 보면 치명적인 부패성이 아브라함에게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1)
 겸손입니다. 바보같은 태도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장작을 들고 종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3일을 통과할 때 생기는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2) 순종입니다 - 말씀대로 했습니다. 에누리하지 않고 정한 장소에 번제로 그 아들을 제단에 눕히고 죽 이려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그에게 몇 가지 시험이 일어났을 것인데 이것을 이긴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셋째, 시험의 결과,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 13-15절에 보면 이삭 대신 숫양을 바치게 하 시고 그곳을 여호와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인 것입니다. (2) 16-17절 에 대적의 문을 얻는 약속입니다. 창 12장의 큰 민족, 번성의 복이 창 22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의 의 모습, 온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약속대로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Abraham's Test (Genesis 22:1-19)

Abraham in the text also had many trials, but this factor also played a role in his brother's death at Moriah. Therefore, Jewish commentators say that because a sane person can absolutely choose freely, he or she was free from any guilt even if he or she chose not to do so. He could fall and commit a sin and break the covenant, or he could pass this test and enjoy the blessings of the covenant. In conclusion, the test on Mount Moriah gave Abraham the opportunity to stand tall as the father of true faith. First, the purpose of the test is that he, who had been tested countless times over the issue of having a son, which he had been anxiously waiting for for 25 years, is now to give birth to Isaac and, after the test of driving out Ishmael, offer Isaac as a burnt offering on Mount Moriah. The purpose of God's testing is to have a heart that "feareth

God alone (now I now that you fear God"). (12) The fear of Jehovah is the same as the faith in Christ in the New Testament. Acts 20:20 It is the same as repentance toward God and faith in Jesus. A heart that appears fearful on the outside but has passionate love on the inside is the fear of the Lord. In Chapter 1:7 it is called the beginning of knowledge and wisdom, and in Psalm 2:7 it is said to kiss his son with fear. It refers to a state of mind where fear and love coexist. The harmony of these two is faith, which is created only by the Holy Spirit. Also, this refers to love for the Lord. Peter's humble love for the Lord is awe-inspiring. It is a heart of self-denial, humility, and devotion. Second, looking at how to overcome the test and how he lied about Sarah, a fatal corruption was lurking around Abraham like a poisonous snake. Despite this, we were able to take a new leap forward through this test. We discover two ways to overcome the test. 1) Humility. - It may be a foolish attitude, but I chose to become a fool before God.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picked up firewood, and walked for three days with my servants. It must have been the conflict that arose as the three days passed by that difficult moment. At that time, he walked the path of the cross with a humble heart. (2) Obedience - I did as I was told. Without restraint, they laid the son on the altar as a burnt offering at a designated location and attempted to kill him. Because he faithfully believed in God, several tests must have occurred to him, and it was obedience that overcame them. Third, as a result of the test, God promised two blessings to Abraham who passed the test. (1) In verses 13-15, he had a ram sacrificed instead of Isaac and called it Jehovah. This is a foreshadowing of Christ's atonement. It showed the cross of Christ. (2) Verses 16-17 are the promise to open the enemy's door. The great nation and the blessings of prosperity appear in more detail in Chapter 22 of Genesis. Abraham, who

passed the test, showed the appearance of righteousness and meekness. He believes that he becomes a person who reflects the image of God when he carries the cross with humility and obedience, as promised by giving him only the tests he can bear and the way to escape them.

사울의 죽음 (대상 10:1-14)

한 사람의 생애는 출생, 결혼 그리고 죽음을 기해 전환점을 갖 습니다. 그 중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잔치 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며 자기와 세상 앞에 정직하게 서서 현재 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 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 버림을 당한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습 니까?(13-14) 첫째, 여호와와의 말씀을 지키는 소중성을 가르칩니다. 18절에 사 울의 특징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본래 사울은 최초의 신정국가의 왕으로 선택될 정도로 복 받은 인물이었 습니다. 그는 성령의 체험을 하여 작은 일에 성실할 정도로 매우 겸손한 인격으로 통솔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 씀의 작은 부분을 에누리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테스트에 넘어지 고 말았고 그 일로 내리막길로 나갔습니다. 성경을 에누리하는 것 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때부터 타락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탄 은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긴박감을 갖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어버립니 다. 작은 일부터 회개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의 대용물을 찾는 위험성을 가르칩니다.(18) 일심으 로 주를 따르지 못하면 자연히 대용물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사 울에게 그 대용물은 신자(무당)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버림 을 듣고 매우 슬퍼했고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 다.

사울은 그 후에도 왕으로 있었으나 쓰임받지 못하여 죽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며 시기와 미움이 발동하고 탐욕이 역사했고 귀 신에 들린 사울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대용물로 바꿀 때 죽을 상황에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감동은 되나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정말 망령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예서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셋째, 생명의 길을 밝혀 줍니다.(20) 성경은 사울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그 바톤이 옮겨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20)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그의 생애는 죽더라도 복을 빌고 부름을 받았습니 다. 베드로도 주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고 바울 역시 교회를 주와 그의 말씀께 부탁하여 어려운 중에서도 위 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다윗처럼 하나님들 찾아야 삽니다. 우리는 죽음이란 사건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잘 준비하다가 맞이해야 합니다.

Saul's death (1 Chronicles 10:1-14)

A person's life has turning points at birth, marriage, and death. Among them, we must think deeply about death. So the evangelist says that it is wiser to go to the house of mourning rather than the house of banquets. Because through death, we can stand honestly before God, ourselves and the world, and make the right choices and take action in the present. What lessons do we learn from the text in which Saul, the first king of Israel, neglected being God's king and was abandoned when he took God's place? (13-14) First, it teaches

the importance of keeping the word of Jehovah. In verse 18, Saul's characteristic is evaluated as "he did not keep the word of the Lord." Originally, Saul was a blessed person who was chosen as the king of the first theocratic nation. He was a king with leadership and a very humble personality who experienced the Holy Spirit and was sincere in small matters. The problem was that while we were suppressing small portions of God's Word, we ended up falling under God's test and things went downhill. It is very dangerous to minimize the Bible. Because from then on the corruption begins. Satan uses his word to tempt us to change our priorities. Here's where the problem arises. You will need the usual podium. We must be honest before the standards of God's Word. If you don't have a sense of urgency, you will become a failure. Please repent from small things and be faithful in small things. Second, it teaches the danger of finding a substitute for the Word. (18) If we do not follow the Lord with one heart, we will naturally follow a substitute. For Saul, that substitute was a believer (shaman). When Samuel heard of Saul's abandonment, he was very sad and never saw him again. Saul continued to be king after that, but he was not used and lived a dead life. As he tried to kill David, jealousy and hatred arose, greed took over, and Saul, who was possessed by a demon, failed to repent in the face of death when he exchanged God's covenant with him for a substitute. I was moved, but I could not stand with true repentance and faith. I truly had the same heart as Esau, who had a seared conscience. Third, it reveals the path of his life. (20) The Bible does not end with Saul's miserable death. We are told that the baton has been passed on to David. (20) We must walk in David's path. He became a man after God's heart and was called to be blessed even in death. Peter also received great grace from God when he followed the word of the Lord, and

Paul also entrusted the church to the Lord and his word and achieved great work even in difficult times. In this age of confusion, we must seek God like David. We must become wise people who live honestly in the face of death. When the Lord calls, we must prepare and understand everything well.

은총과 신실의 입맞춤 (창32:1-12)

야곱은 밧단아람 20년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오면서 그곳 에서의 삶을 "은총과 신실의 삶"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갈 때처럼 올 때도 여전한 에서의 위협은 그의 생애를 매우 괴롭혔습니다. 그 때 야곱은 자기 수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승산이 서 질 않자_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는 20년동 안 부족한 자기에게 베푸신 은총와 신실을 생각했습니다.(10)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첫째, 마하나임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1 절에 여호와와 사자들 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와 사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 즉, 마하나임(double camp)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의 길을 언제나 인도하신 증거입니다. 엘리에셀을 인도했던 여호와 의 사자나 야곱의 뽀엘의 꿈에서 본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 천사들 을 통해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 결혼생활 에 나타나셨습니다. 결혼 첫 날밤 속임을 당하여 레아와 라헬을 그리고 그 후두 종 모두 네 아내를 돌보아야할 책임을 졌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일이 몰려왔습니다. 일부일처의 원리가 무너 지고 언약을 지키기가 힘들어 진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님은 그 가운데서 최상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훗날 13 자녀 가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생업의 번창을 기대 하여 야곱의 재주와 근면, 자기 딸들까지 이용한 라반은 열 번이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야곱의 입장을 세워 주셨습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자기 백성이 위기에 올릴 때 항상 도 우셨습니다. 마하나임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약속되었습니다. 둘째, 은총이 준비되었습니다. 은총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20년 간 야곱은 모든 방면(생각 이론, 의식주 거부 장수, 평강 등)에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았으나 동시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배웠습니다. 벨엘의 체험, 압복강의 체험, 세겜의 체험, 벨엘의 제단, 바로 앞에 서는 체험에서 압복강의 체험에 머물 때가 많습니 다. 야곱에게 약속된 이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하십니다.

•셋째, 진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은혜는 진리 위에 설때 풍성하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같이 움직입니다. 야곱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신실하게 대우하시고 진리로 항상 이끄신 것입니다.(12) 그가 약하고 버릇없고 어려울 때도 최종적으로 이끄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한 이름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은총과 신실의 입맞춤은 그리스도 안의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순간적으로 받은 우리는 오랜 세월을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이 공존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 목적은 야곱같이 거짓된 우리의 부패성 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하여 겸손히 주를 바라 보라보아라 합니다.

The kiss of grace and faithfulness (Genesis 32:1-12)

When Jacob returned to his hometown after living in Paddan Arang for 20 years, he evaluated his life there as "a life of grace and faithfulness." Esau's threat, which remained as strong in his departure as in his departure, greatly tormented his life. At that time, Jacob tried to overcome the problem with his own means, but when the odds were against him, he sought God's grace. As he stood before God, he thought about the grace and faithfulness that had

been given to him despite his shortcomings for 20 years. (10) What kind of grace did you experience? First, He prepared the grace of Mahanaim. In verse 1, the angels of the Lord met Jacob. Jehovah's angels were called God's army, Mahanaim (double camp). This is evidence that God has always guided his path. It is shown through the angels of Jehovah who guided Eliezer and the angels traveling between heaven and earth seen in Jacob's dream at Bethel. How did it appear to Jacob? (1) He appeared in marriage. He was deceived on his first day of marriage, leaving Leah and Rachel, and the latter two servants, all responsible for the care of four wives. Things that deviate from the principles of creation have come to us. Even though the principle of monogamy was broken and it became difficult to keep the covenant, God guided us in the best way. Later, his 13 children became the foundation of Israel. Laban, who took advantage of Jacob's talent, diligence, and even his own daughters in hopes of prospering his own business, broke the contract ten times. God established Jacob's position even in that situation. The Angel of the Lord has always helped his people in times of crisis. The grace of Mahanaim is promised to us too. Second, grace is prepared. Grace refers to grace. For 20 years, Jacob lived as a person who received grace in all aspects (thinking theory, long life without food, clothing, and shelter, peace, etc.), but at the same time, he learned that he was not worthy of receiving it. There are many times when the experience of Bethel, the experience of the Jabbok lecture, the experience of Shechem, the experience of standing in front of the altar of Belel, and the experience of the Jabbok lecture are many times. This grace promised to Jacob is now with us. •Third, the truth is ready. Grace and truth move together because grace becomes abundant and solid when it stands on truth. What Jacob remembered was God's faithfulness. God treated Jacob

faithfully and always guided him with the truth. (12) Even when he was weak, spoiled, and difficult, it was the Word that ultimately guided him. He promised to create a great nation, a great name, a source of blessings, and the grace of Immanuel. The kiss of grace and faithfulness has always been promised to us in Christ. We, who are instantly justified, go through a long process of becoming holy and enjoy the blessing of God's grace and faithfulness coexisting. The purpose is to break our false, corrupt nature like Jacob. In order to be there, we are asked to humbly look to the Lord and see.

영몽을 가진 성도 (창37:1-11)

영몽(spiritual dream)이란 성령이 주시는 꿈으로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한 계시의 성격을 갖습니다. 세상 꿈과 달리, 우리는 하나 계시는 나라가 임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요셉처럼 꿈을 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꿈으로 충만하고 꿈을 현실화하는 생애였음이 부각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고 성장하면서 남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습니다. 헛된 꿈으로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진 세상에서 우리는 계시에 근거한 꿈을 많이 꾸어야 합니다. 첫째, 왜 꿈을 꾸게 하시는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꿈, 이상, 음성, 기적, 우림과 동 등으로 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가진 꿈은 그의 쥘단을 향해 그의 형들의 쥘단이 절을 하며, 해달 열 한별들이 그를 향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가정 식구가 애굽을 먹여 살리는 치리자 클먹여가 될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자로 쓰임 받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엘벳엘에서 다시 예언된 언약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인 신정국가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요긴하게 쓰임받은 자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제적인 메시아의 조상, 유다보다 요셉의 생애를 더 돋보이도록 기록했습니다. 정말 요셉의 두 아들, 무낫세와 에브라임은 큰 지파가 되어 이스라엘이 최초의 신정국가를 형성하기까지 모태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 속에 보여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한 시대를 사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말씀에 믿음을 화합시켜 영몽 곧, 소원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둘째, 어떤 꿈입니까? 요셉의 꿈은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상자또 원을 이루는 꿈입니다. 스테반이
 악도들 앞에서 구속역사적 설교를 전할 때 요셉의 꿈을 말합니다.(행7:9-
 18) 그 내용은 형제 중심, 가정 중심에서 온 세상의 중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성취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약성취의 도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의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해 많은 꿈을 꾸고 이 땅에
 성취됨을 볼수 있습니다. 셋째, 어떻게 꿈을 성취하나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꿈을 담은 그릇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요셉의 경우,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가요? 형들의
 미움을 당하고 팔리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옥살이하는 등,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두 가지의 유익 1) 하나님
 형상의 인격적 변화 2)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성령의 꿈을 품고 말씀을 상하고 그것을 따라
 기도해야합니다.

Saints with spiritual dreams (Genesis 37:1-11)

A spiritual dream is a dream given by the Holy Spirit and always has the character of a Christ-centered revelation. Unlike the dreams of the world, we must dream of the Kingdom coming and enjoying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Therefore, Christians must dream like Joseph. Because God is working in it. It was highlighted that Joseph's life was full of dreams and a life of making dreams come true. I have dreamed since I was young, and as I grew up, I was able to interpret other people's dreams. In a world mired in confusion and confusion due to vain dreams, we need to have many dreams based on revelation. First, why do you make me dream? In the Old Testament era, God was pleased to express his will through dreams, visions, voices, miracles, raindrops, etc. A dream Joseph had when he was young was that his brothers' straw bales were bowing to his straw bales, and eleven stars were bowing to him. This shows that Joseph will be a ruler and ruler who feeds Egypt for his family, and at the same time, it shows that he will be used as a person who specifically fulfills Abraham's covenant. The covenant prophesied again in El Bethel is to establish a theocratic nation, a sample of God's kingdom, on this earth, and the person who was instrumental in achieving this was Joseph. Therefore, Moses recorded the life of Joseph to be more prominent than that of Judah, the actual ancestor of the Messiah. Indeed, Joseph's two sons, Munasseh and Ephraim, became a great tribe and served as the mother of Israel until it formed the first theocratic nation. We, who live in an age when Christ, who was seen in Joseph's dream, came and embodied God's kingdom, believe in Jesus and are saved, then we unite our faith with the word God has given us and live according to our spiritual dreams, that is, our wishes. That is the gift of the Holy Spirit. Second, what kind of dream is

this? Joseph's dream is a dream of the coming Christ's sphere forming a circle. When Stephen delivers a redemptive historical sermon in front of evildoers, he talks about Joseph's dream (Acts 7:9-18). The content is about brothers and families becoming the center of the whole world. This was accomplished first by becoming the prime minister of Egypt, but more importantly, he became an instrument of covenant fulfillment. In other words, behind Joseph's dream is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fulfillment of God's will on this earth. We too can dream many dreams for the Lord and the gospel and see them come true on this earth. Third, how do you achieve your dreams? All Christians' dreams are summarized as restoring the image of God. What should we do to achieve that dream? God gives top priority to sanctifying the vessel containing dreams. So, He allows us to go through many hardships. In Joseph's case, how much suffering did he have to endure? He was hated by his brothers, sold, enslaved in Potiphar's house, and imprisoned, all going downhill. In that suffering, Joseph received two benefits: 1) a personal change in the image of God, and 2) the gift of the Holy Spirit. We who have faith like Joseph must also have dreams of the Holy Spirit, read the Word, and pray according to it.

회복된 벤엘 제단 (창35:1-15)

이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세 가지 사건을 살피고 그것 을 나의 구원의 삶과 연결시켜봄으로 나의 현 위치를 발견하고 그 첫째. 한 부끄러운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4:1-21에 보면 세계 에 정착하여 안주하려던 야곱 가정에 외동딸, 디나가 대낮에 세계 추장의 아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 은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엘로 돌아가 제단 쌓는 일보다 화해하여 거기 안주하려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 로 더 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계_성모든 남자들로 할례를 받도록 한 후 고통 할 때를 이용하여 모두 죽이고 부녀들과 자녀들을 강금하고 물품을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 다. 30절에 야곱은 아들이 그들에게 악취를 내었기 때문에 온 식구가 원 주민의 공격으로 모두 올살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 보기에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작은 둘째, 내면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34:29-30에 보면 이 충격적 사건을 만난 야곱이 정말 두려워하고 답답해 할 때 하나님은 벤엘 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1 절에 세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부흥하는 갱신된 생활을 보인 것입니다. 1) 일어나라 -, 그리스도_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2) 올라가라- 그리스도안의 발 판 위에 견고하게 서라는 것으로 확신입니다. 3) 제단을 쌓아라 기 물려오는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 그것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때 야곱의 반응은 회개의 결단을 내 려 이방 신상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 버리고 자기의 정결을 위해 의복을 바뀔 입었는데 이것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참된 회개란 지 정의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알아야하고 느껴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야곱 집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때 야곱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계속 부서지고 셋째, 엘 벤엘의 순종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했습니다. 참게으르고 끈질깁니다. 벤엘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엘 벤엘이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다시 말하면 성소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성소의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순종이 일어난 것입니다. 1)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일찍이 벤엘에서 서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고 그리고 십일조를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는 20년 동안 이 약속에 대해 시원스러운 응답의 증거를 보이지 못했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손에 의해 지금 벤엘에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 쌓는 한 행동 속에 세 요소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은 벤엘의 하나님 곧 성소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가 서원한대로 "여호와와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자리로 나가는 순종이 일어나야 합니다. 입을 벌려 회개하며 간구합시다

Bethel Altar Restored (Genesis 35:1-15)

At this time, we will look at three events that Israel experienced and connect them with my life of salvation to discover my current position and find out the first. It started with one embarrassing incident. In 34:1-21, Jacob's family was trying to settle down in the world when their only daughter, Dinah, was attacked by the chief's son in broad daylight. What was Israel's attitude when

they heard this news? When Jacob returned to El and tried to reconcile and settle there rather than build an altar, God allowed another, bigger problem. An incident occurred in which Simeon and Levi forced all the men of the world to be circumcised, then took advantage of the time of suffering to kill them all, force the women and their children, and plunder their goods. In verse 30, Jacob was afraid that his whole family would be attacked and killed by the villagers because his sons were causing a foul odor to them. It may seem embarrassing to people, but God used it. This little second, inner revival took place. In 34:29-30, when Jacob was truly afraid and frustrated after encountering this shocking incident, God commanded him to return to Bethel. There are three verbs in verse 1, which show the revived and renewed life of Christians. 1) Rise up - stay in Christ. 2) Climb up - I am confident that I will stand firmly on the platform in Christ. 3) Build an altar The way to overcome the enemies that come upon you is to dedicate yourself to the word of God and live a life of obedience to it. At that time, Jacob's reaction was to make a decision to repent, burying the foreign god's statue under the oak tree and changing his clothes to purify himself, which indicates repentance. True repentance requires a change in justice. You must know, you must feel, and you must choose. It was by God's grace that life-giving repentance occurred in Jacob's house. At this time, Jacob continued to be broken by the invisible hand, and thirdly, the obedience of El Bethel occurred. Jacob responded to God's covenant after 20 years. He's so lazy and persistent. Bethel means the house of God, and El Bethel means the God of the house of God, in other words, the God of the sanctuary. The obedience of going to God in the sanctuary and offering sacrifices took place. 1) He built an altar. He once made a vow at Bethel, saying that he would become my God and build a

temple, and that he would live in recognition of his Lordship of everything by paying tithes. However, he did not show any evidence of a clear response to this promise for 20 years, and then he returned to God. The altar is now being built in Bethel by this powerful leading hand. All three elements were included in the one act of building an altar. So the name of the land means the God of Bethel, the God of the sanctuary. As he had vowed, he went to the place where he said, “Jehovah is my God, and I am God’s people.” We too must have the obedience to go out there. Let us open our mouths in repentance and supplication.

벤엘의 하나님(창28:10-22)

야곱 생애의 분수령이 된 벤엘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가르치는 진리를 배우려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체험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그에게 시작 되고 진행된 구원의 체험이 신자의 것과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체험을 했나요? 첫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이 매우 큰 것처럼 보입니다. 리브가는 밧단아람에서 언약의 소중성을 알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불임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보면 여호와 경외 신앙이 뚜렷하게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도피자가 되어 루스(벤엘)에서 피곤하여 자다가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미를 나dana엘의 경험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약속"에서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중보사역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표현입니다. 이 교제가 사다리를 통해 해결되는데 그 사다리가 그리스도의 모형 곧,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여호와 경외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신왕성할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애에 오랫동안 그 교제는 왕성하지 못했으나 그의 생애의 중심이 된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했습니다. 야곱은 광경을 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환상과 음성 그리고

우림과 둠, 말씀, 기적 등을 통해 일하신 것이 구약시대의 특징입니다. 그가 들은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에게 먼저 약한 언 약이었습니다. 큰 민족, 창대한 이름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에 복의 대상이 너와 네 후손"이라는 말을 더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시가 더 구체화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통해 만 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언약의 골자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계시를 접한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더 분명해졌고 예 배 중심한 삶과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권자라는 신앙이 더 확실 해졌습니다. 야곱의 벧엘 체험이 그의 생애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 처럼 신자의 거듭난 체험은 그의 생애의 중심입니다. 야곱의 결단 이 나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만난 벧엘의 체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로 바울의 다메섹과 나다나 엘의 무화과나무의 체험 같고 베드로의 소명의 체험과 같은 거듭남 의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났고 그로부터 받은 언약을 확인하고 거기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루스에서의 야곱의 3중 경험으로 하나님 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 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I am trying to learn the truth taught through the presence of Hina, which I experienced at Bethel, which was the watershed in Jacob's life. The reason is that the God that Jacob experienced is the same as the God that Christians experienced, and the experience of salvation that began and progressed for him is along the same lines as that of believers. What did Jacob experience? First, he had the experience of meeting God personally. Jacob's encounter with God appears to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his mother Rebekah. In Paddan Arang, Rebekah knew the importance of the covenant and had a dream of becoming the mother of tens of millions of people. Even when she faced difficulties of infertility, she prayed and received God's answer, showing that her faith in the fear of Jehovah was clearly established. because of. He became a fugitive overnight, and while he was sleeping tired in Luz (Bethel), he experienced the presence of God in his dream. He saw angels ascending and descending the ladder that connected heaven and earth. We find its meaning in Jesus' words in Nathanael's experience: "The promise to see angels ascending and descending on the Son of Man." This shows the ministry of intercession with God. This is an expression of eternal life. This fellowship is resolved through a ladder, and that ladder is the model of Christ, that is, Christ. When Jacob saw this vision, he personally experienced that his communication with God would flourish through faith in the fear of Jehovah. However, although that fellowship was not active for a long time, it was evidenced that it became the center of his life. Second, he confirmed God's covenant. Jacob saw the sight and at the same time heard the voice of God. A characteristic of the Old Testament era is that God's revelation was through visions, voices, Urim and Thum, words, and miracles. The words he heard were a weak covenant first made to Abraham and Isaac. In addition to being a

great nation, a great name, and a source of blessing, the words “the object of the blessing are you and your descendants” were added. This is further concrete evidence of the revelation. It is said that the gospel will be preached to all people through Christ and Christians. Third, when Jacob made a vow before God,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became clearer and his faith that God was the sovereign over all his possessions became clearer. Just as Jacob's experience of Bethel was at the center of his life, Jacob's experience of being born again must become the center of his life. This is because it is an experience of rebirth, like Paul's experience of Damascus and Nathanael, and Peter's experience of calling, confirming the covenant received from him, and responding to it. I hope that Jacob's three-fold experience will help you clarify y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make a decision before God.

[The End of Living Stream Book 16 (2011)]

Soli Deo Gloria